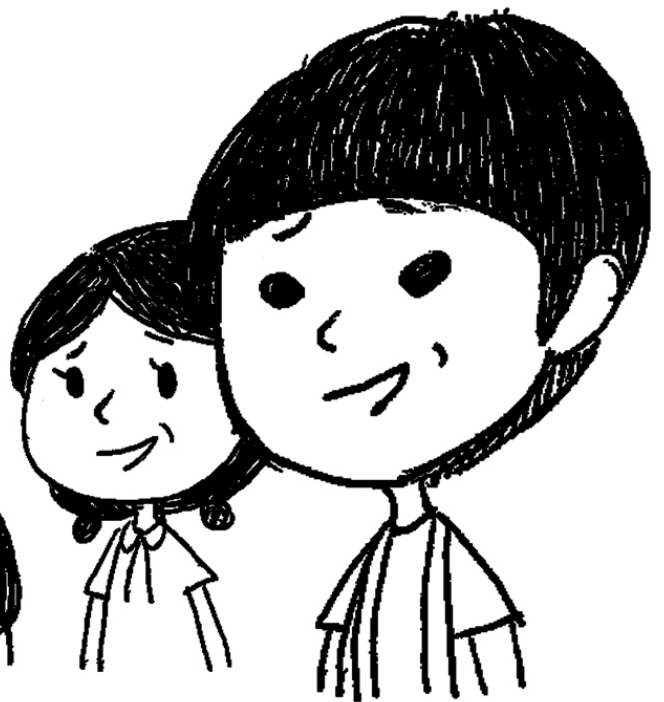


청소년활동가들의  
박.치.한.수.다  
궁금하지 않나요?



후속자료집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준비모임〉

# 후속자료집 순서

자료집순서	2 p
챗을 준비하며&행사를 마무리하며	3 p
챗간단소개	4~5 p
시간표로보는 챗	6~7 p
사진으로보는 챗	8~11 p
숫자로보는 챗	12 p
이렇게 준비했어요 챗	13 p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로그인	p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환경설정	p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대화나누기	p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오락	p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끝장토론	p

켓을 준비하며&행사를 마무리하며

# Chat [챗]

1. 담소를 나누다

2. 청소년활동가들의 발칙한수다

**행사명: 2010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일시: 2010년8월5일~7일 (2박3일)**

**장소: 오덕훈련원(경기도남양주시위치)**

**주최: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준비모임**

**후원: 아름다운재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충남지부 / 참여연대 / 학술단체협의회**

**취지: 청소년인권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단체/활동가  
들이 함께 모여 교류와 토론을 통해 청소년운동을 더욱 풍부  
하게 만들며,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

# 시간표로 보는 챗!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7:00	오덕 훈련원 GOGO	아침식사 및 씻고 준비하기	<b>Chat VII [로그아웃]</b> 아점 만들어 먹기 + 헤어지는 시간
8:00			
9:00			
10:00		계곡에서 신나는 물놀이 시간	
11:00		맛있는 점심식사	
12:00			
13:00	참가접수 및 부스설치	쿨쿨낮잠 혹은 자유 시간	모두 번
14:00	<b>Chat I [로그인]</b> 접속하기, 친구추가		
15:00	<b>Chat II [환경설정]</b> 규칙정하기, 약속하기	<b>Chat V</b> <b>[오락(五樂)하기]</b> 다섯 가지 주제의 재미난 모둠토론	
16:00			
17:00	맛있는 저녁식사	맛있는 저녁식사	
18:00			
19:00	<b>Chat III [대화하기]</b>	<b>Chat VI</b> <b>[대화창 흔들기]</b> 청소년 활동에 대한 끝장토론!	
20:00	모난라디오 스페셜 공개방송과 함께하는		
21:00	활동나누기		
22:00	<b>Chat IV</b> <b>[잉여번개모임]</b>		
23:00	신나고 뜨거운 밤을!		
24:00	잉여!		

## Chat I      로그인

첫째날 / 14:00~16:00 (2시간)

‘이 님은 누구?’ 어색한 우리 어색한 미소를 날리며 ‘챗’방에서 쓸 **대화명을 설정 해봐요**. 대화명을 설정했다면 친구들을 찾아 추가할 차례! 처음 만나 아직은 낯설지만 서로 질문을 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어색함도 풀어 봐요.

## Chat II      환경설정

첫째날 / 16:00~18:00 (2시간)

이제 2박3일 동안 함께할 우리들의 챗[Chat] 환경을 설정할 차례! 기본설정 / 대화체설정 / 이모티콘설정 / 플래시콘설정 4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재밌고, 의미있는 챗[Chat]을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해봐요!

## Chat III      대화하기

첫째날 / 19:30~22:00 (2시간30분)

:모난라디오 스페셜공개방송 ‘별이 모나지는 밤에’

‘모난라디오’가 ‘챗’에 뒀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인터뷰를 요청해도 당황하지 말아요. 그냥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단체나 활동에 대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Chat IV      잉여번개모임

첫째날 / 22:00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빼영! 우리는 뜨겁고 신나는 밤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잉여’가 되겠다는. **뿔굴거리기부터 달빛산책, 마피아, 좀비게임, 카드게임, 만화책, 공포영화, 다큐영화까지! 잉여!**

## Chat V      五樂(오락)하기

둘째날 / 15:30~18:00 (2시간30분)

서로 다른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활동해온 우리. *하지만 청소년들끼리만 통하는 것이 있다! 다섯 가지 주제. 그리고 다섯 가지 ‘즐거움’이 있는 허물없는 챗팅!* 부담 없이 우리들끼리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라는 미리 준비된 다섯 개의 주제가 있으며 만약 다른 청소년 활동가들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면 잊지 말고 제안해주세요~

## Chat VI      대화창 흔들기

둘째날 /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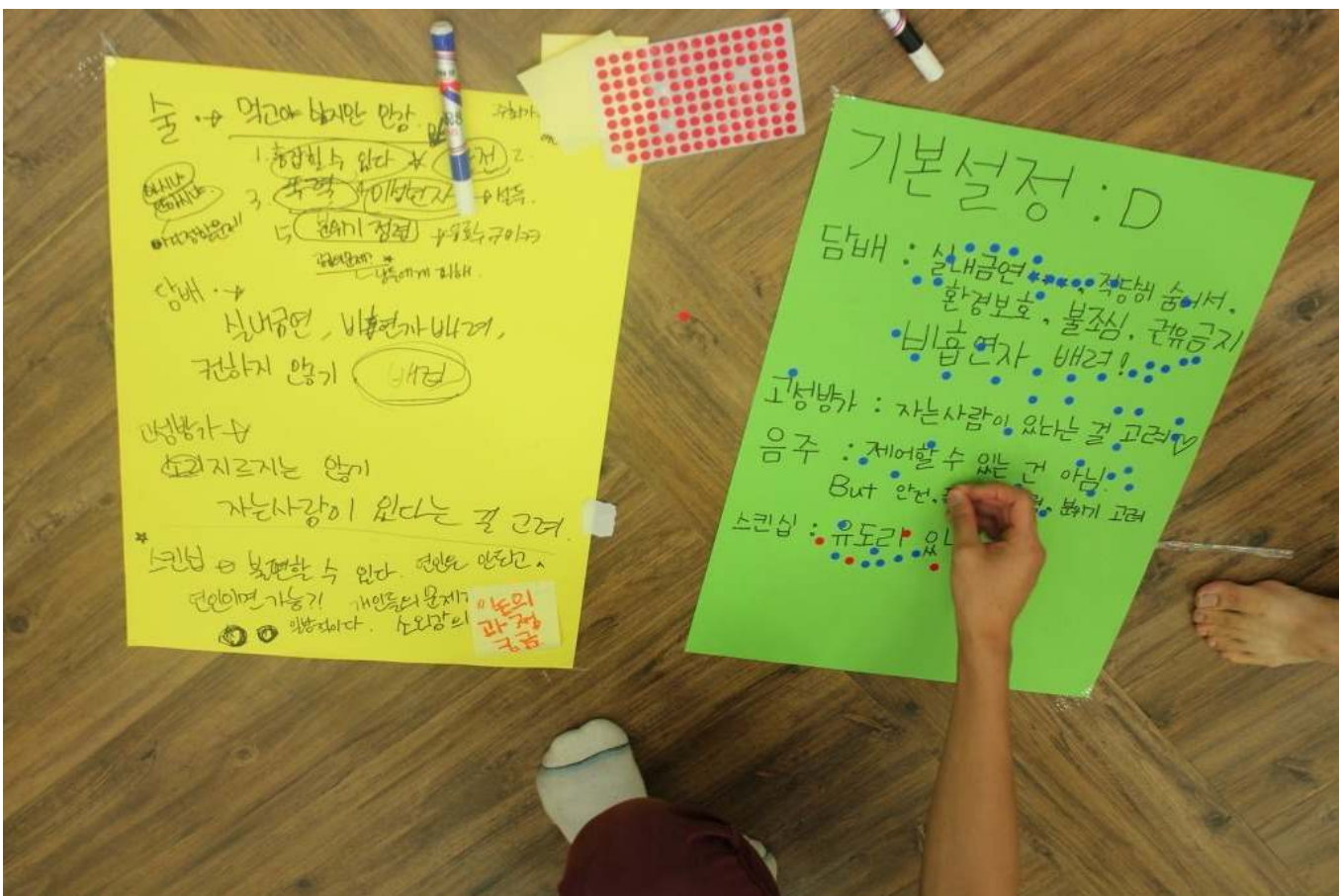
:곶장토론 ‘청소년활동,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대작전’

여러분은 이제 ‘100분 토론’에 참여한 시민 논객입니다. 패널로 참석한 4명의 토론자들과, **지금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청소년활동의 뜨거운 ‘핫이슈’들을 솔직하고도 발칙하게 이야기해봅시다!** 100분토론보다 더 후끈후끈한 대화창흔들기!

## Chat VII      로그아웃

인터넷이 안 되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챗[chat]방에서 로그아웃을 해야 할 시간 흑흑 방별로 직접 만든 아점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으며,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보아요. 2박 3일동안 어땠는지 **느낌을 나누고, 서로의 번호도 교환해** 봐요.

# 사진으로 보는 챗!











# 숫자로 보는 챗[Chat]

**106**일 동안  
**19**명의 활동가들이  
준비한 챗[Chat]에

**16**개개단체 **52**명의  
청소년활동가들이

**48**시간동안 함께  
토론도 하고 놀기도하고

# 챗 준비 이렇게 했어요~

## [1차 모임] 6월 24일

- 공동 주최 단체 확인: 공동주최단체의 기준을 확인하고 후원단체와 구분함.
- 날짜와 장소를 간단하게 논의, 대략적인 예산안 잡기.
- 기획단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청소년활동가대회에 대한 희망 나누기

## [2차 모임] 6월 30일

-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장소 논의, 참가 대상과 인원을 확정.
- 활동가대회 2박 3일 전체 일정을 대략적으로 짜 봄.
- 활동가대회를 시기를 겨울방학 즈음으로 미룰 수 있는 지 문의해보기로 함. (추후 일정 연기가 무리라 판단하여 8월에 가기로 함.)

## [3차 모임] 7월 5일

- 청소년활동가대회 슬로건을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챗[chat]''> 으로 확정함.
-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오덕 훈련원' 으로 장소 결정.
- 초안으로 나온 시간표를 보며 프로그램 초벌 논의를 함.

## [4차 모임] 7월 11일

- 각기 프로그램 기획을 간단하게 함께 논의 하고 자세한 기획은 분담.
- 온라인 홍보물 검토. 오프라인 홍보의 세세한 역할 분담과 홍보 연락처 리스트 작성.

## [5차 모임] 7월 16일

- 예산 검토와 수정. 후원요청서 검토 및 수정과 '챗' 후원 조직과 연락 분담.
- 참가신청서 검토와 신청 방법, 참가비 논의
- '챗' 온라인 홍보 계획 짜기

## [6차 모임] 7월 19일

- 모둠토론과 끝장토론 기획을 집중 논의. 토론 진행 역할 분담.

## [7차 모임] 7월 21일

- 오리엔테이션, 약속 정하기, 활동 나누기 프로그램을 집중 논의. 진행 역할 분담.

## [8차 모임] 7월 25일

- '챗' 2박 3일 프로그램 총 검토와 수정 및 보완.
- 후원 상황 검토와 예산 지출 사항 관련 논의.

## [9차 모임] 8월 3일

- 프로그램 별 준비물 체크와 참가자 인원 체크
- 당일 진행 연할분담과 프로그램 진행을 사전에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 봄.

## [10차 모임] 8월 13일

- '챗' 준비 과정/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에 대하여 놓친 점과 좋았던 점 등을 평가함.
-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
- 후속 모임 날짜 잡기와 기획. 후속 자료집 관련 연할 분담.

#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 1. [Chat I] 로그인

- 누가 누가 모였나? 나에게 수식어를 붙여 돌아가면서 소개
- 이름 알아맞히기 빙고 놀이

## 2. [Chat II] 환경설정 (진행: 파이루)

- 2박 3일 동안 함께할 우리들의 환경을 설정해보는 시간. 원하는 모둠으로 찾아가서 함께 지내면 좋을 환경을 함께 설정해 보자.
- 네 개 모둠은 기본설정(술, 담배 등등)/ 대화체설정(반말, 호칭, 차별적 표현 등)/ 이모티콘 설정/ 플래시콘 설정 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곳으로 출발~

### <대화체 설정 팀> 호칭/ 반말/ 차별적 표현

- 언니 오빠 소리는 하지 말자
- 닉네임을 기본적으로 부르고 알아서 '~님', '~씨'라고 부르자
- 기본적으로 존칭을 사용하되, 반말도 서로가 동의하면 괜찮지 않나?
- 토론 시간에는 존칭을 기본으로 하고, 잉여놀이 시간이나 물놀이처럼 놀 때는 반말 하기 연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 이름을 부를 때, 훈훈한 멘트 붙여서 띄워주면 짹나지 않을까?
- 쓰지 말아야 할 차별적 표현
  - 남자가... 여자가...
  - 욕설은 지양 : 욕의 범위는 어디까지? 상황에 따라 판단
  - 무언가에 빗대어 비하하는 표현
  - 지역을 차별하는 말?
  - 너는 이것도 몰라... 어려서 몰라... 등등
  - 재는 원래 그래, 재는 저래... 단정하는 말투도 싫어
  - 스태프들이 참여자들에게 명령하는 듯한 말투를 쓰거나, 참여자들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말은 쓰지 않으면 좋겠
  - 스태프에게 허락을 구하는 말도 차별, 위아래를 만들어내는 말

### <이모티콘 설정 팀> 땡땡이/성폭력/언어폭력

- 땡땡이
  - 자기 자신의 자율에 맡기자.
  - 땡땡이의 범위는? 모든 프로그램에 동의해서 온 거 아님?
  -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없다. 땡땡이를 친다면 이 주변에 있게 하자는 정도의 기준은 필요한 거 아니야?
- 성폭력

- 애인 있나요?
- 남녀가 나뉘어진 방에 놀러가서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불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 문을 열면서 노크하면 좋겠다
-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인정. 이성애 중심은 안돼
- 남성으로서 여성을 불편하게 발언 행위들 금지

#### <기본설정 팀> 술, 담배, 고성방가, 스킨십

##### ○ 술

- 술 먹고야 싶지만, 민감한 것 같다.
- 흠 잡힐 수 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 술 먹고 안전 사고 나면 어떻게?
- 폭력 문제가 일어날 수도.
- 술을 사러 누군가 가야 한다면 사러 가는 사람에게 민폐

##### ○ 담배

- 실내 금연
- 비흡연자 배려하자
- 권하지는 말자

##### ○ 고성방가

- 소리 지르지는 말자.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고려.

##### ○ 스킨십

- 불편할 수 있다.
- 연인은 가능?!
-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소외감의 문제.
- 일방적이다.

#### <플래시콘 설정 팀> 2박3일간 재미있게 보내는 법

- 인사할 때 “이름 빵” 하면 “으악”
- 전체 인원 칸에 싸인 받자
- 미션지를 만든 후 수행(예: 이름 싸인 받아오기)
- 폰카로 사진 찍은 후, 마지막날 공유
- 야자 타임
- 종결어미 정한 후 항상 붙이기 : 예> 안녕하챜?
- 기상미션! 기상체조한 후 인증샷. 물구나무. 점프, 피라미드 등등
- 명찰에 상태를 적어놓는 종이 꺼두기 : 예) 나 지금 ~함.

#### (진행)

모둠별 논의 결과 찍은 종이 살펴보면서, 포스트잇에 의견 달기. 공통 약속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 스티커 붙이기 ▶사람들 피드백 받아서, 그 모둠에서 다시 모두에게 제안할 약속을 다시 논의. ▶재정리된 걸 갖고 전체 찬반 투표에 들어감.

### <기본 설정> 최종설정

- 실내 흡연은 금지.
- 야외에서 담배 필 때는 지정된 곳에서. 계곡이나 숙소 주변에서는 금연.  
(계곡에서는 담뱃재 떨어지면 더러워진다, 숙소 주변에서는 냄새 들어오니까 안돼)
- 비흡연자 최대한 배려
- 자는 사람 있는 방에서는 배려
- 음주는 자제. 안전, 언어폭력 등 문제점 고려.
- 스킨십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려하면서 하자.

=> 대부분 동그라미로 이동.

=> 세모에 선 한 사람 : 스킨십은 배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음주의 역기능뿐 아니라 순기능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화기애매한 분위기에서 노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뒤풀이 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왜 하필 술인가?

=>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 음주를 '자제'에서 '조심' 정도로 수정하자!

### <이모티콘> 최종설정

- 땡땡이는 자기가 알아서, 그러나 나가는 이유, 어디 가는지 등등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같은 방 사람에게나/ 종이에 적거나)
- 성폭력은; “남자 친구 있어요?” “여자 친구 있어요?”라고 묻기보다 “애인 있어요?”라고 묻자(모두가 이성 애자는 아니니까)/ 문을 열 때는 노크/ 같이 놀 때는 잘 수 있는 방 확보/ 물놀이 같은 거 할 때 옷통 벗고 그러지는 말자/ 여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 하지 말자

=> 세모에 선 한 사람 : 땡땡이를 칠 때 왜 같은 방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지?

=> 왜냐면... 같은 방에 있으니까 더 자주 볼 수 있고, 더 편할 수 있으니까.

=> 같은 방 쓰는 사람 말고, '편한 사람'으로 수정하자!

### <대화체> 최종설정

- 존칭을 기본. 상대방이 동의하면 반말 허용
- 토론 시간에 기본 존칭은 그대로.
- 언니, 오빠 호칭은... 각자 자율에 맡기자. 다만 자기가 더 원하는 호칭이 있으면 이름표에 쓰기
- 차별적 표현은 하지 말기 : 학생이, 여자가, 남자가 등등 표현은 하지 말기. 뭔가에 빗대어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 쓰지 말기. 지역 비하 발언 쓰지 말기
- 스텝이라는 표현 쓰기 말기. 우리 동등한 관계/ 스텝과 참여자 간 언행 신경 쓰기 : 구별 없이
- 무조건 비판,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싫다

=> 세모에 선 사람들 : 언니나 오빠라는 표현은 성별을 드러내는 말이니까 불편할 수 있다/ 비아냥도 필요할 때가 있다

=> 재반론 : 언니, 오빠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자고 한 것. 따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면 좋겠. 우리가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비아냥거리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 비아냥으로 들리까봐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면 어찌지?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하는데, 상처 주는 걸 걱정하다 보면 비판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 조정 의견 : 언니, 오빠라는 표현은 성별, 나이에 따른 위아래 문제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고민. 비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쓰자. 스탭이 특별한 권위를 만들지 않기 정도로 조정.

=>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언니, 오빠 호칭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대회에서 쓰지 말라고 하기엔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나이, 성별에 대한 문제의식 담아 가급적, 언니 오빠 표현은 쓰지 말자!

=> 어떤 호칭을 써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제안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존중하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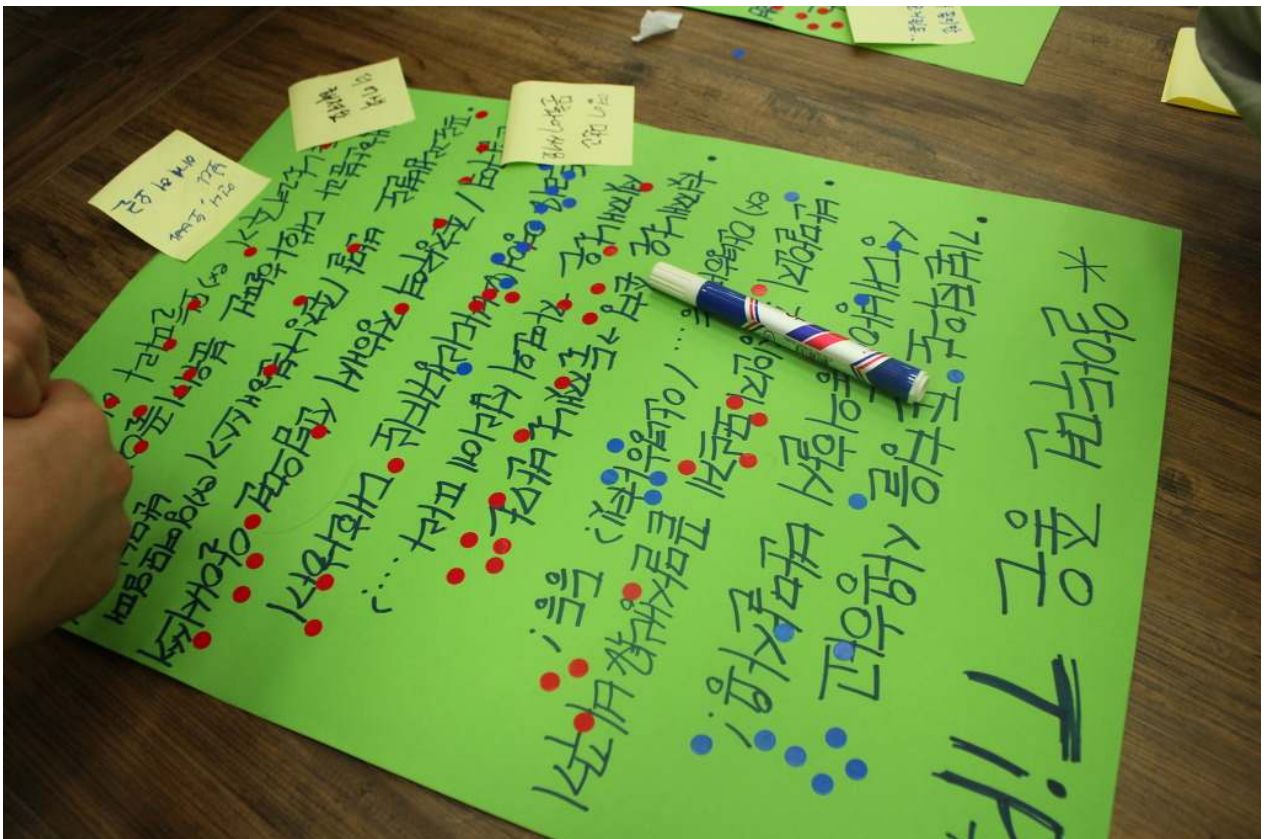
### <플래시콘> 최종설정

- 인사할 때 “00방”하면 자기가 속한 방 대답하는 식으로..
- ‘추억의 인증샷’ 찍고 마지막 날 공유하면 재밌겠다
- 움직이는 롤링페이퍼 : 자기가 메모지 넣고 다니면서 연락처도 받고 그러자.
- 이름표에 자기 상태를 적어놓아서 서로 배려하도록 해보자

=> 반대한 두 사람 : 첫 번째 제안된 놀이를 할 자신이 없다

=> 세모에 선 사람 : 첫 번째 제안된 놀이는 자기 방에 소속된 느낌을 준다. 나에게도 조국도 없고, 조방도 없다

=> 조정 의견 : 첫 번째 ‘00방’ 놀이는 하지 않는 걸로. 이름표에 자기 상태 쓰는 건 모두가 해야 하는 건 아님을 확인함. 첫 번째 놀이를 강력히 원하는 ‘레쓰’에게는 첫 번째 놀이로 인사하는 걸 적극 호응해주자!



### 3. [chat III] 대화 나누기 - 모난라디오 공개방송

난다 : 오랜만에 찾아온 모난라디오. 잘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게 몇 개월만에 방송을 하거든요.

엠건 : 공개방송을 네번째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사실 저희는 챗에 섭외받아서 오게 됐거든요.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네이트온 하는데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니네 라디오 해보지 않을래? 하다가... 흘러 흘러 라디오를 하게 됐답니다. 원래 챗 프로그램이 활동 나누기, 대화하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난다 : 처음엔 이게 무려 PPT 서바이벌이라고 PPT를 하나씩 갖고 와서 쓰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기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엠건 : 근데 뭐 PPT만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든 걸 다들 해올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게 재미가 너무 없잖아요. 그걸 용납할 수 없었을 뿐이고. 그래서 나왔을 뿐입니다.

난다 : 모난라디오는 재밌나요?

엠건 : 저희의 재미는 방송 끝난 후에 판단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하고 싶은 말들 있으시면 편하게 이 문자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즉석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대화가 통해요. 딱이죠?

난다 : 저희가 공개 방송을 맞아서 준비해왔는데요.

엠건 : 챗에 모인 청취자 분들을 위하여 평소에 하지 않던 프로그램들을 몇 개 준비해왔어요.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는 조금 늦게 설명해드릴게요.

난다 : 여기 모인 분들 모두 청소년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다를 텐데요. 엠건 같은 경우는 야자 안 하려고 한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하구 저도 학교 생활이 답답해서 그만두고 청소년활동 시작하게 됐거든요? 청소년으로 살기 좀 딱딱하잖아요. 맨날 뭐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어리다고 툭하면 무시하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키고, 도저히 참고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크고 작은 움직임들 만들어온 거 같은데. 활동이란 게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이라면, 여기 모인 분들을 다들 할 말이 많은 거 같아요.

엠건 : 원래 우리 하려고 한 코너가 뭐였죠?

난다 : 다양한 영역 다양한 지역 활동하는 청소년들○니 모여있는 게 흔한 게 아니고 처음인데. 서로를 알 기회가 없어서 이 사람 어떤 활동하는지 등등 모르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리하여 청소년활동가대회 챗에 누가 모였나 알기 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엠건난다 : 랜덤 인터뷰~

엠건 : 저희가 소개드리자마자 문자 주셨네요. 난다님 모난라디오 때문에 웃을 이쁘게 입으셨군요? 그런건가요?

난다 : 저 나름 이쁘게 입고 다녀요 원래도. 왜 그래요!

엠건 : 진정하시고. 자자... 랜덤 인터뷰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여세요. 뭘 그리 꿍꿍 여미고 계시나요.

난다 : 오픈 마인드~

엠건 : 오픈 마인드 준비해주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내가 하는 활동들을 많이 나누고 표현하고 싶

다. 넘쳐나는 표현의 욕구를 끌어올려주세요. 정말 많이 유념하셔야 할 것. 수줍음. 버려주시고.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문자 주신대로 즐겁게 춤추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난다 : 엠컨 디제이 적절한 수줍음을 지켜주세요

엠컨 : 공기가 리포터 역할을 하면서 저희 인터뷰를 도와줄 겁니다.

공기 : 은근 사람 많네요. 나오니까...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디제이 공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리포터지만. 여러분들 인터뷰하러 나왔는데. 첫 번째는 제가 골라도 되죠?

난다 : 아 맞다. 방법을 안 알려드렸는데. 저 앞에 보시면 예쁘게 만든 판넬 하나 있는데. 참가한 분들의 활동을 적어본 거예요. 참가 과정에서 빠지거나 없는데 적힌 것도 있긴 한데. 이거를 보시고 궁금한 곳을 딱 지목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색깔별로... 질문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묻고 싶은 걸 선택하고.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공기 : 누굴 처음으로 할지 고민 많이 해봤는데요. 학교너머 어디 있으세요? 학교너머에서 오신 분. 지금 학교너머 활동하시는 거죠?

재미있어서 온 건데 왜 이러냐고 불만을... 에 죄송합니다. 학교너머 관련해서 어떤 활동하시는지 가르쳐주실 수 있으세요?

학교너머 : 제가 그 학교너머에 기획단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캠프를 다니기만 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대강 활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쳇 캠프처럼 캠프하고 도보도 다니고 하면서 홈스쿨러들이 캠프하는 공간이라고...

공기 : 그럼 학교너머에서 기획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인 그런 분이랑요? 예 캠프를 다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에 죄송합니다.....

난다 : 예 공기 리포터 공기 리포터? 너무 빠져들지 말구요. 너무 둘만 눈빛을 마주보고 있으면 저희가 썩스럽잖아요. 같이 보면서 얘기해주셨으면.

공기 : 학교너머 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것도 없으시고... 하는 족족 막히네요. 하는 족족... 어려운 인터뷰예요

쟁열 : 캠프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보통 어떤 캠프를 다니시나요? 전부 다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몇 개만..

학교너머 : 전국으로 다니는 도보 캠프나 연극 캠프나 아니면 심리학 인문학 캠프 같은 거 다니고 있습니다.

(박수 )

공기 : 알아서 끝내주시네요. 알고 싶은 단체나 모임이나 활동가들 있다면 찍어주세요!

학교너머 : 깜.

공기 : 깜? 와 깜이에요~

엠컨 : 우리 너무 앉아 있으면 편하지만 서있어야 인터뷰하는 분이 보일 거 같아요. 같이 잠깐만 일어나셔서 인터뷰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공기 : 저도 깜이긴 한데요.

한날 : 저희가 70매 복사해와서.. 아깜잖아요. 이거 읽어보세요 ㅋ

공기 : 인터뷰 좀 하실까요? 짧 소개 좀 해주세요!

한날 : 저희 그... 저희는 누구냐면요. 밤마다 짹짹해~ 센스있죠? 10대 여성주의 커뮤니티 짹이란 걸 운영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여성주의팀 이름으로 활동하는 팀이구요. 저희에게 사활이 담긴 자리여서 킁킁대며 이런 피켓들 가져왔어요. 가져온 물품들은... 주로 하는 활동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챗에서 보면 여성 친구들 남성 친구들 수가 비슷한데, 대부분 청소년 활동하는 친구들 만나면 남성 친구들이 더 많고, 청소년인권 얘기할 때도 남성 친구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면서 10대 여성 친구들과 만나보고자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학교 앞에 다소 추해보이는,.. 피켓들 들고 나가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기 :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엠건 : 자기소개부터 들죠~

한날 : 언제부터인지 말 못하는 게 여기 분들은 최근에 시작했고. 저기 사회 보는 분이랑... 비10대이면서 남성도 들어와요. 2008년 여름부터 했어요.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쓰 : 저는 어쓰예요

날토 : 날토예요

똥코 : 똥코입니다.

공기 : 소개를 안 물어봤네요 제가. 그러면 그 짹 활동에 주된 이슈가?

어쓰 : 방금 한날이 이야기한 것처럼 활동 판 안에서 남성들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10대이고 여성인 청소년들이, 특히 학교 안에서의 여성 청소년들, 여성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방선거 할 때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 정책에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직접 공약도 만들고; 엄마가 되지 않을 권리라거나 출산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교육감 선거 때는 생리대 배치라거나 성폭력 교사 아웃제 이런 이야기도 했고 페미니즘 교육을 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여성주의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던가 하면서 하고 있어요.

공기 : 그것 말고도 제가 짹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여학교 앞 선전전이라든가 열심히 이렇게 나눠줄 걸 만들어서 활동한다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힘들진 않으신지? 소규모 모임이라거나 단체의 경우는 뭘 하기도 힘들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한날 : 어디나 속해 있는 공간에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최근에 1년 활동을 평가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평가가... 웬지 뭔가를 엄청나게 한 거 같지 않은데 바빴던 거 같다. 뿔뿔한 거 같지만 하고 있는 건 꾸준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힘들기도 하고... 저희가 나눠들니 다소 입에 담기 부끄럽다고 많이 여겨지는 이 섹스라는 단어 또는 임스니이란 단어 이런 것들 가지고 나가게 되는 이유들은, 해설지에 잘 나와있는데, 혹시 이거 1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혹시 몇 번이 제일 민망한... 두환님? 아까 세네장 가져가시더라고요.

두환 : 뭐라고 하든 다 이상한데; 1번??

공기 : 네 키스입니다.

한날 : 흥봄이님은요?

흥봄이 : 5번;

한날 : 이게 사실 출제의도에도 나와있지만 정답이 있는 거가 아닌데. 키스 애무 성교 섹스 자위 보지 자지 이런 단어들이, 되게 민망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게 민망해지는 이유에 대해 좀 고민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민망하게 생각하게 됐는가. 특히 10대들에게 왜 그걸 금지하고 하는 문화와 제도가 있나. 학교에서 절대 외칠 수 없는 단어들 이런 거 적어 가서 외치고 그러거든요.

공기 : 깜에게 물어보고 싶다가나 하는 거 있으세요?

정열 : 커뮤니티 하신다고 했는데 활발하게 잘 되는 편이세요?

한날 :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ㅠㅠ 글 하나 써주시면 감사하죠.

공기 : 뒷면에 주소가 있다고 하네요.

미지스 : 저 같은 경우 지방에 살고 잇는데요. 아수나로 소속이긴 한데 아수나로는 지방에도 지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방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나요?

공기 : 아수나로는 전국 조직이죠?

한날 : 네 부럽습니다.

공기 : 굉장히 부러운데. 네트워크는 서울도 겨우겨우

한날 : 너무 좋구요. 지부가 생긴다면 인력 지원은 가능해요. 내려가서 같이 선전전도 하고... 금전지원은 좀 힘들지 몰라도. 인터넷이 좋은 게 인터넷은 다소 평등하잖아요. 온라인에서 만나뵈게요!

김인식 : 별다른 질문은 아니구요. 최근 교과부에서 조사한 게, 임신한 여학생 85%가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경우도 잇는데 그런 활동은 없는지?

한날 : 근데 고런 비혼모라고 하죠? 미혼모란 단어 안 쓰고 비혼모라고... 미혼모는 혼인 안 한 상태라는 게 부족해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혼모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10대 비혼모의 경우 퇴학당하거나 자퇴를 강요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최근에 교과부에서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고 10대 비혼모에게 일종의 출산 휴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슝슝한 게 요즘에 출산 강조하잖아요. 그게 10대까지 내려왔나 생각도 들면서도. 그 정책 자체만 보면 10대 비혼모들이 학습권을 보장받는 거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10대 비혼모들을 직접 지원하는 뭔가를 하고 있진 않구요. 이런 전단지 만드는 것도, 10대가 임신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이'쓰어, 낙태를 했어? 하는 분위기가 학교 못 다니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단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걸 좀 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 이거 지원이 10대 비혼모 이야기하셨는데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 비혼모를 위해서도 뭘 하나요?

한날 : 저희가 어떤 비혼모의 문제냐 모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주로 주목하는 문제들은 10대 여성 관련 문제들에 주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 한국성폭력상담소나 이렇게 여성 문제에 관심 갖는 단체들과 같이 토론회 같은 것도 열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직접 그 문제에 뛰어다니고 이러진 못하고 있어요.

공기 : 많은 질문 받았는데요. 마지막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그럼 깜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구요. 깜이 저쪽 단체들 중에 물어보고 싶었던 모임이나 이런 곳 있으면 꼽아주세요.

덤코 : 날개?

공기 : 날개 어디시죠? 일어나시자마자 팜플렛을 막 나눠주시네요. 비싼 종이... 깜은 A4용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이나름 : 저희는 홍성 지역에서 하고 잇구요. 대안학교 비스한 건데 풀무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이나름입니다.

별라 : 저는 홍성에서 인문계학교 다니는 이영주입니다.

공기 : 반갑습니다. 날개는 대학평준화 입시폐지 이런 단어를 듣긴 했는데 정확히 어찌너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나름 : 대학평준화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 대충요

나름 :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철저하게 일류부터 삼류까지 등수가 매겨진 대학들을 똑같이 만들잔 이야기에요. 고교 평준화가 요즘 강원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똑같이 평준화를 시키자는 건데.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엉뚱한 소리 같고 그런데, 다른 북유럽 국가들 등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대학평준화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당장 나가서 시위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는 하는 활동을 보면 거기도 많이 나와있는데 문화제라고 해서 공동 행동의 날 있어서 대학평준화란 이런 거고 현 교육의 문제가 이러 ~ 거다 이야기 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홍성 지역밖에 안 하고 있어요. 오리지날이라고 있는데, 그걸 중점 활동으로 보고 하는~ , 영화 보고 하는 토론을 하고 있어요

공기 : 날개라는 활동을 어떤 게 끌려서 하시게 됐나 궁금하거든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에 전 안 좋으는 추억이 있어서 ㅋ

별라 : 저희 담임 선생님이 날개도 하시고 여러 사회 활동하시는 분이예요. 그랬서... 담임 선생님이 처음에 저희 반 위주로 회원들 찾고 있다가 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말이 되게 많아요. 쓸데없는 말이든...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회 분야에 관심도 있고 모여서 토론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고. 학교 내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하는 동아리가 별로 없어서 동아리 들게 되었습니다.

공기 : 날개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나름 ; 원래는 한달에 한 번 정도, 자주 모임 땐 2주에 한 번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행사가 있으면 행사 준비를 하고, 이번에도 MT 같이 가서 같이 모여서 준비하고 하는데, 한달에 한 번씩은 꼭 이 영상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게 포스터예요 . 친구가 직접 만든 건데. 인권위에서 나온 영화들 보고... 분야들로 해서 관련된 전문가? 현장에 있는 분들 모시고 토론하는 걸 하고 있어요. 이 준비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릴레이라느 ~ 영화 보고 저번에 5월에 했을 때 공현님 난다님도 오셨어요. 12월까지 잡혀 있어요.

공기 : 비주얼이 좋으신 거 같아요. 팸플릿도 예쁘고. 직접 만드셨다고 하네요. 영상은 혹시 준비되셨어요? 틀수 있나요? 지금은 인터뷰만 하고... 아 제 정체성을 혼란시키네요

난다 : 원래 간단하게 이 단체들 다 불러고 했는데요.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몇 팀 골라서 그 분들이 영상 준비한 곳도 있고 한데 자세하게 깊은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깜이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어서... 사실 지금 여기 우리 원래 라디오처럼 진행해서 나와있는 디제이들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나와 그러고 있는데 물론 편하고 좋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공기 : 그럼 짧게 짧게 어떤 활동하는지 아셨을 거 같으니까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은총 : 날개는 금전적 여유가 있나요? 아니 팸플릿이..

공기 : 비싼 종이!

이나름 : 저희는 주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활동을 해주셔서 홍성지부 충남지부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주세요.

은총 : 배후다 배후;;

엠건 : 날개 말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생각난 건데요. 우리 좀 풍족하다. 돈 좀 있다 하는 분들 있으세요?... 하긴 돈이 많을 리가 없죠.

공기 :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그럼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구요. 날개에서 궁금하신 활동들 뽑아서 인터뷰해보도록 할게요.

별라 : 이름 특이한 알리바바 궁금해요. 알리바바!

공기 : 와 알리바바다~ 같이 소개할까?

어쓰 :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까 말했던 깜이랑 같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있는 노동빈곤팀에서 하고 있고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리바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 : 리포터 겸 알리바바 소속되어 있는 공기라고 하구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언제 시작했을까요?

어쓰 : 노동빈곤팀 만들어진 건 2008년?

공기 : 깜이랑 비슷하게;; // 어쓰는 알리바바 어떤 게 끌려서 왔어요?

어쓰 : 알리바바 설명을 안 했는데; "알바 권리 바로 내가 바로 지금"의 준말이에요. 10대 청소년 노동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 알리바바 들어간 건, 올해 초에. 사람들 많은 거리 나가서 서명도 받고 구호도 외치고 다니고 노는 걸 하는데 그때 맨 처음 활동시작한 게 따라가서 활동을 했었어요. 청소년 노동이라는 게 많이 활동하거나 생각하는 주제도 아니고 생소한 주제잖아요. 청소년이면 당연히 학교다니면서 공부 하는 거 아냐? 돈 벌어서 뭐 하고 놀려고.. 하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청소년도 노동할 수 있다는 이야길 많이 하고 있어요

공기 : 주된 이슈는 최저임금이라거나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 44만원 세대라고... 88만원 세대도 못 미친다고 그래서. 나이 어리다고 무시받고. 욕도 많이 듣고. 힘든 현실을 관련해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고 있구요. 알리바바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공기 : 눈앞이 아찔해진다.... 4명?

어쓰 : 팀원은 저랑 공기까지 해서 4명이구요. 보통 뭐 할 때마다 한 명씩 빠지더라구요. 주로 3명이서;

공기 : 알리바바 자체가 힘든 노동;

별라 : 알바 하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서 시급을 다 못 받잖아요. 임금이든 환경이든.. 거기서 피해본 학생들 있거나 하면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쓰 : 주로 그런 거 접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업장에... 저희는 좀 더 많이 공부했고 법도 좀 더 알고. 노무사라고 노동법 잘 아는 분하고 같이 가서 이런 거 잘못된 거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돈 내되라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사례도 있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청소년노동의 이슈가 단지 돈 조금 받고 못 받고로 흘러갈 때, 청소년에 대한 무시라거나..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갖고는 있어요.

공기 : 질문 없으면 넘어가고;;

어쓰 : 라틴 궁금해요-

공기 : 라틴 활동이랑 자기 소개 부탁해요

레쓰 : 저는FP쓰구요. 라틴은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예요. 지식인에서 답변해주고 상담해주고 같이 노는 거 하고 있어요

날토 : 아까 나왔던 날토구요. 라틴은 활동하는 단체라기보다 커뮤니티 느낌이라가지고... 글 쓰면 댓글 달아 주고; 같이 커뮤니티 느낌?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인터섹슈얼 퀘스처너리... 다양한 성소수자들 만나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기 : 라틴 활동의 주된 이슈 같은 거 있나요?

레쓰 : 2007년에 차별금지법 활동하면서 사회 활동 많이 했는데요. 여러 단체 활동들 넘겨 받아서 같이 참여하고... 무지개 봄꽃 행사나 퀴어퍼레이드 같은 행사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반놀이터가 있는데요. 8월 15일에 이반놀이터라는 게 있어요. 장소가 없어서 올해는 미뤄졌지만..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행사나, 같이 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 작년에 갔었는데 재밌고 신선하고..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겠구요. 라틴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한 번?

미지스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날토 : 라틴은 온라인 커뮤니티라서; 회원수는 4천명 정도 있어요-

공기 :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 라틴이 뭐예요?

레쓰 : 왜 라틴이냐면요 Rainbow Teenager 줄여서 라틴이에요. 왜 레인보우냐면...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6가지 색의 무지개예요. 정율이 설명?

공기 : 그건 저 분 걸리면 하구요. 자 다음 거 바로 뽑아보시죠 반딧불이에서 오신 분? 예 반갑습니다...

달 : 저는 대구에서 온 달이라고 하구요. 반딧불이는 대구지역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입니다.

공기 : 반딧불이에서 혼자 오셨나요? 아 그렇구나...

(박수)

공기 : 반딧불이 활동 어떤 게 끌려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달 : 초등학교 6학년 때 캠프 가는 걸로... 캠프가 처음이었는데 열심히 활동한 건 올해부터? 시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할 게 없어서 뭘 할까 하다가 반딧불이 소모임이 많아서;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공기 : 반딧불이에 질문 있으신 분?

짱열 : 왜 혼자 오셨어요?

달 : 애들이 바빠요 ㅠ

한날 : 혹시 소모임도 혼자서;



달 : 소모임은 여럿이 하는데 다들 인문계 다니고 보충하고 해서 못 왔어요

난다 : 소모임이 뭐뭐 있어요?

달 : 글쓰기 모임 있고, 환경동아리 있고, 청소년도 놀 권리 있다고 노는 모임? 꽃다지라고 역사 동아리 있구요. 직립보행이라고 여행 모임도 있고.. 여러 개 많아요.

공기 : 재밌는 활동 하시는데

태진 : 그런 소모임들을 대구 지역 분들과 같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안 다니고 청소년들 다 해서

달 : 꼬덕꼬덕. 시간 되는 애들 모여 가지고 하는 건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2명만 모이면 바로 몽미 만들어서 활동하고.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래요.

공기 : 그럼 고르러 가실까요?

달 : 아수나로

공기 : 아수나로요? 아수나로는 굉장히 많아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물어볼게요. 아수나로 소개 좀 먼저;

세안세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전국 단체구요 -ㅂ-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인권에 대해서 직접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공기 : 인권단체 중 유일한 전국단위라고 한에요

세안세다 : 저희는 지부장 같은 권위적인 거 없구요. 평등한 활동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지부장이라고 불리는 건 언론 때문에...

공기 : 언론 탓이겠죠.

미지스 : 저는 아수나로 경남중부지역에서 미모를 담당...(;) 닉네임은 미지스라고 하구요.

어쓰 : 미지스가 무슨 뜻이에요?

미지스 : 미지의 수 엑스인데요... 제가 뿔끼가 있어서

은총 : 전 아수나로 수원지부에서 오늘 아침에 잘 못 버려져서 온... 은총이라고 하구요. 아수나로에서 드립을 맡고 있습니다.

공기 : 바로 질문을 받을까요? 왜 활동하시나요?

세안세다 : 왜 활동할까요? -\_-;; 재밌고 하면은 뭔가 되게 살아있는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아요.

미지스 :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꼬셔서 같이 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저는 별로 인권 이런 데 관심 없었는데요. 솔직히는 사회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보다는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다정한 거 같아요. 그래서 빠져든 거 같구요.

은총 : 저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수나로가 되어 있었어요.

공기 :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레쓰 : 아수나로는 왜 아수나로?

은총 : 아름답고 수줍은 나의 로망스

별라 : 제가 얼마 전에 아수나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가입만 하고 활동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여기서 아수나로 분들 있어서 여쭙보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따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미지스 : 절차 같은 건 필요 없구요. 가까운 지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회의나 일정 잡혀요. 가서 친한 척하면서...

공현 : 브로셔 보면 어떻게 활동회원 되나 친절한 안내가 있구요. 근데 날개를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ㅋ

공기 : 다음 동인련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독 페이스가 되게... 계속 인터뷰하던 분들과는 다른. 일단 동인련 소개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정율 :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인련이라고.. 동성애자인권연대라는 인권단체입니다. 인권단체고. 여러 팀들이 있는데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팀이 있어요. 열 몇명의 청소년들이 있고. 그 청소년들과 분기마다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무지개학교 놀토반이라고 놀토 때 친구들이 자유롭게 오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놀토반에서 같이 시작한 청소년 ㄴ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공기 : 챗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정율 : 내부에 청소년팀이 있어서. 그동안 저처럼 늙고 끈대스런 사람 위주로 단체가 운영됐지만.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 고민하면서 올 데도 없고 고민 나눌 데도 없다 하면서 2009년도 1월부터 놀토반을 시작했어요. 작년엔 한 7번 정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 친구들과 이제는 좀 더 다양한 활동으로 넓혀가야 되겠다. 청소년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 청소년들도 만나고 교사들도 만나고 자기 얘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데. 바쁜 친구도 많고 외박도 안 되고 해서 저 혼자 갈 뻔했다가 저 혼자 가면 욕 먹는다 해서... 같이 이렇게 어찌 왔습니다.

공기 : 레인보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만 마지막 설명해주시면

정율 : 무지개색이 7색이잖아요? 그 중에 남색을 빼서 6색인데. 그게 흔히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상징이라고 해요. 탄생 배경을 보면 예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70년대에 여러분처럼 청소년들이 가난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경찰 단속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투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이후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했는데... 그 한 국회의원이 암살당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에 의해서. 밀크라는 영화... 그 영화 끝 무렵에 무지개 깃발이 등장을 해요. 그걸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그 장소에 가기 위해 6색을 맞춰서 했고, 원래 8색이었는데... 한 미술가가 만들었다고 하고. 3:3을 맞추기 위해 6색이 되었고. 빨간색은 섹슈얼리티, 초록색은 자연, 그렇게 색색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우리도 다양하게 살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

레쓰 : 동인련에서 청소년 활동을 어떤 걸 주로 하는지 궁금

정율 :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97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초창기에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저도 청소년 때 이 단체 찾아온 건데. 그래서 그러다가 서른살이 넘었고 - 청소년 때 들어와서... 2003년도 들어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고3 때 학교 짤리고 여러 문제가 있던 친구인데 저희 단체 사무실에서 가족과 학교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충격을 많이 먹고, 이 친구들을 보듬어줄 수 있어야 되고 얘기할 곳이 있어야겠다 해서 하게 됐고. 놀토반을 시작으로 해서... 8월말에 준비하는 건,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 좀 선생님들이나 또래 친구들이 편견으로 갖지 않고 볼 수 있고 읽어볼 수 있는 자료들을 8월 말에 만들고. 단체 소속된 청소년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라틴이나 동인련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솔직히 복받은 청소년들이기도 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 오케이 하고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친구드링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해보고 얘기 들어보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난다 : 죄송한데 우리가 너무 다들 인기가 많으셔서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조금 쉬었다가 9시 5분 정도 시작하는 걸로 하구요. 말씀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 새로운 얘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구요. 9시 5분에 다시 모여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쉬는시간)

(아수나로 일제고사 영상 공연)

엠건 : 빨리빨리 하려고 순서를 좀 짜서 했어요. 일제고사 투쟁 아수나로에서 오래 했었던 그런 거

난다 : 공연으로 시작을 했구요. 아까 못한 활동들 이야기해요.

엠건 : 소개해주고 싶다고 보내주신 팀이 있는데. 성서공동체 FM

송성한 : 저는 대구 성서공동체 FM 에서 왔구요. 작년만 해도 전국 8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방통위 지원 끊긴 이후로 나주 방송 없어지고...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Fm89.1 맞추시면 되구요. 제가 모난 라디오에 좀 감정이 있는 게. 대표님이 모난라디오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좀 이렇게 만들어라. 굉장히 재밌다고 \_-; 저희는 전국 유일로 이주노동자 방송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각국 원어로 방송하고 있구요. 장애인들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고. 정신장애인 어머님들도 마이크 잡고 방송을 하셨습니다. 전국 7개 방송국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마포FM 관악FM 있고 분당에도 있습니다. 대구 성서 FM 이 가장 좋긴 하지만. 가까운 지역 라디오 청취해주세요. 제가 오늘 취재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도 요청드리면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엠건 : 쳇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송성한 : 아수나로 카페 가입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 기자단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브로셔 놔뒀는데, 30개 밖에 준비를 안 해서.. 관심 있는 분들. 반딧불이랑 같이 왔습니다.

엠건 : 들어가시고 이제... 청소년 활동이 아니어도 다들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법한. YMCA라고 아세요? 그쪽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손 좀 들어주세요. YMCA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난다 : 드디어!

고등어 : 별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춘천에서 온 춘천YMCA 고등어라고 합니다.

청와대소년 : 저는 수원YMCA에서 작년 연합회장 맡은 청와대소년이라고 불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YMCA 소개 퍼포먼스로 해볼게요.

생명 평화 사랑의 리더 청소년 YMCA!

고등어 : 뽀뽀하네요.

청와대소년 : 말했다시피, 생명평화의 리더이구요. 입고 온 옷은... 작년에 강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옷 입고 강을 25km를 3박4일동안 걸었습니다. 짐 다 매고.. 죽을 뻔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녹색사업 해서 직접 비누나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옷 같은 것도 수거해서 새로 해서 팔고. 동티모르라고 어려운 나라를 인정적으로 도와주고 커피 모금운동해서 도와주고요. 청소년 ymca 는 아수나로랑 비슷한 거, 인권 같은 걸로 토론하구요 캠페인활동도 하고 합니다.

고등어 : 동티모르 컴피는 전국 Y 사업이라서 같이 팔고 있구요. 저는 청소년기자단 단장으로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 있고 방송반 동아리 댄스 동아리 이런 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 돈은 많나요?

고등어 : 저희는 좀 가난해서... 돈은 없구요;;

청와대소년 : 돈이 없는데, 지부마다 편차가 심해요. 돈 많은 지부도 있고; 수원은 좀 가난해요. 저희가 모금 해서 벌어요

난다 : 어디가 돈이 많아요? ㅋㅋㅋㅋㅋㅋ 아니에요 농담이구요. 저기 뭐지. 고등어님이라고 하셨죠? 그님이 청소년단체협의회인가? 거기도 같이 소개를

고등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청소년회의에 위원으로 있는데. 저희는 청참위나 청특 아시죠?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랑은 좀 다르게; 실천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있구요. 폭력 자살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자든지 예방이라든지...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을지로나 홍대 거리에서 캠페인하니깐 보시면 아는 척 좀 해주십시오. 매달 맨 마지막주 토요일에 합니다

엠건 : 문어발이신데요? 이 파란 옷 분도 제보해주셨는데 이 분도 하나 있대요.

청와대소년 : 저는 수원시에서 차세대위원회라고 시청 소속된 거기서 활동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정책을 직접 말해서 정책이 반영되고 수립되게 하는 단체인데요. 반영된 사례도 있고.. 아직 저희 기수에는 반영시켜보지 못했는데요; 잘 하면 반영이 돼요. 설득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엠건 : 그럼 끝으로 챗 오면서 뭘 기대하셨는지 한 말씀

청와대소년 : 많은 청소년단체들 와주셨는데, YMCA와 연대했으면 해서 와봤습니다

고등어 : 저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랑 연대하고 싶은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연합이 되게 조성해보겠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이 역점 사업이 네트워킹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엠건 : 우리 모두에게 연대가 필요할 거예요. 청소년 활동하면서 갑갑하고 힘든 게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행동 준비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다른 데도 하고 싶지만 아는 것도 없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 거 같아요 왜 우리밖에 없을까 생각 많이 하실 거 같아요. 챗에서 만난 사람들 놓치지 마시고... 여기도 있잖아 하면서 같이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청소년 참여위원회?

코에바닷물 : 저는 인천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인 코에바닷물입니다

세안세다 : 저는 세안세다라고 합니다.

코에바닷물 : 인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13개인가 있는데 한 회에 12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회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세안세다 : 저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산하예요. 그래서 무슨 청소년의 정책을 반영해준다고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되게 약간 권위적이고 좀 허세있는 그냥 되게 수동적인 앉아서 회의만 하는 그런 단체지만요. 돈은 굉장히 많아서 회의할 때마다 차비로 1만원씩 주시는... 그런 약간 미안한 단체입니다.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공기 :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코에바닷물 : 1년에 한번씩 기수를 바꾸는데요. 연초에 신청하면 1차로 서류전형 보고 두 번째로 면접 봐서 합격하시면 거기서 되시면 돼요.

공기 : 학교 다녀야 하나요?

코에바닷물 : 아뇨

영상고 : 서울 사는데 가입되나요?

세안세다 : 서울에 각 지역마다 있어서...

엠건 :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러시죠? ㅋ 그냥 그 돈 우리 달라 그러면... 안 주려나?

다음으로 넘어가서.

난다 : 저 비슷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수원 아까 수원 차세대위원회? 거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수원 차세대 위원회도 수원 시청 쪽 해서뭔가 한다고 하고 여성가족부랑 연결되어서 정책 반영하고 한단데 연결이 되어 있나요? 참여위원회랑 차세대위원회가?

청와대소년 : 제가 아는 걸아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차세대위원회 들어오면서 배우기를 참여위원회가 바뀐 게 차세대 위원회로 아는데 거의 같을 거예요 둘이.

개굴 : 소속이 다릅니다.

엠건 : 생각보다 정부에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난다 : 학교 안에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의정부 쪽에서 온 유앤아이라는 곳이 있구요. 이우학교 인권동아리 아우름이라는 데가 있다고. 같이 나와주셨으면...

엠건 : 소개좀 해주세요

민다영 : 안녕하세요. 의정부여고 인권동아리 유앤아이에서 왔구요. 부득이하게 저 혼자 왔는데. 동아리 회원 수는 몇 명 안 돼요. 20명 정도 되는 거 같고. 만들어진 지는 작년 겨울 만들어져서 활동이 막 많은 걸 한 게 아니라 저희도 배워가는 수준으로 교내에서 토론 같은 것도 하고. 외부 강사도 모셔서 같이 배우고... 교내에서 거의 주로 활동을 하는데 인권영화제도 몇 번 열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영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우학교 인권동아리 아우름입니다. 이우학교 인권동아리인데, 아우름은 아우르다 할 때 아우름이에요. 저희는 7년이 되었구요. 주제를 정해서 학교 친구들한테 인권에 대해 알리는 일이나 또는 인권 주간이라고, 5.18 주간을 꺼서, 콘서트나 토론회나 영화제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 어린이 캠프라고 인권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돕고 있어요.

엠건 : 계신 분들 다 동아리 만들 때 초창기 멤버세요?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왔다거나

김인영 : 저희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먼저 만들어서 바꾸고 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민다영 : 저희는 저희가 초창기 멤버라서

엠건 : 학교에서 활동하려면 학내 활동은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서 의견 맞는 친구들이랑 하고 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만들고 하는 과정도 복잡한 것도 있고 유지하기도 좀 더 두루두루 모아야 하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들 모으는 일도 힘들잖아요? 과정에서 어떤 게 힘들었고 좀 어떤 걸 하면 되더라 하는 노하우 트은 거 알려주면 좋을 거 같아서

민다영 : 저희의 경우 동아리를 선생님이 먼저 제의를 하셔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니까 학교에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만드는 건 쉬웠고. 인권동아리가 좀 인권이라는 게 그냥 되게 생소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는데 글너 느낌보다는 좀 더 좋은 느낌으로 다가가기 편한 이미지로... 저희는 좋은 이미지요. 먹을 거 먹을 거 ㅋ

엠건 : 아우름은 주로 어떻게?

김인영 : 저희 학교는 동아리를 많이 지원해줘서. 학교에서 동아리 PR 시간 따로 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활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난다 : 여기 다른 분들 이제 좀 지치죠? 질문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 의정부여고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이것저것 활동한 걸로 아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민다영 : 학생인권조례 활동한 건, 전교생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했었고, 인권스승상..... 저희가 초창기 멤버라 뭐든지 다 1회가 되어서, 1회 인권스승상 했는데, 스승상 되신 분이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이어서 그 분이 직접 학교로 와서 수상도 하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지지를 받았어요.

개굴 : 2회 수상자가 있을 거 같습니까?

민다영 : 좀 고민해봐야 하는데; 교외상은 김상곤 교육감 받으셨지만 교내에서도 좋은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 대상으로 학생을 2리 투표를 해서 교내 선생님도 같이 인권스승상 받으셨어요.

따이루 : 선생님만 주는 거예요? 난 안 줘요?

민다영 : 인권의 스승상이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스승의 날 기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엠건 : 2회 수상자 따이루로 논의해보시겠습니다

난다 :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같은 거 없으면?

김인식 : 인권동아리가 경기도에서 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주실 계획이라든지 전국 운동본부에 참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보고 싶어요.

민다영 :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참여할 의향 있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야기니까, 참여하고 싶은데, 저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0 리이 서명운동 0그런 거밖에 없어서...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고 싶어요 의향 있어요 당연히.

엠건 : 그럼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 흥사단 위더스 활동하는 분들 나와서 얘기 좀 해주시죠?

김민석 : 흥사단 위더스 활동하는 김민석이구요

훈민 : 훈민입니다

엠건 : 흥사단이 뭐하는 덴가요?

김민석 : 흥사단이란 곳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드신 민중운동 단체구요. 그 안에 위더스라는, 청소년인권모임이 있습니다.

엠건 : 흥사단을 보고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위더스를 보고 들어가셨나요?

훈민 : 간사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엠건 : 간사님 사람 보고 들어갔습니다.

훈민 : 간사님이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흥사단 알게 돼서 흥사단 청소년인권포럼이라는 워더스에

엠건 : 주로 포럼 열고 토론하는 데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훈민 : 하반기, 6월까지 저희들끼리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저희들끼리 입장 정리 한 다음에 그 다음 8월달부터 캠페인한다든가 토론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서명운동이라든지 하려고 계획 중이구요. 8월 15일날에 저희가 대학로에서 캠페인을 계획 중이거든요? 그리고 토론회도 할 건데.. 많이들 참가해주세요. 주제는 차별 문제. 오장풍 그 선생님 뭐 그 땀에.

엠건 : 어떤 게 끌려서 계속 하고 계세요? 토론이 끌려서?

훈민 :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여러 지역 현안들이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데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나마 우리들끼리지만 토론할 수 있다는 게 좋고 조금이라도 캠페인 같은 걸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에...

김민석 : 솔직히 집이 대학로랑 가깝구요. 봉사 때문에...

엠건 : 봉사활동

김민석 : 봉사시간.

엠건 : 이따가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아요. 봉사 시간으로 활동해도 되나? 이런 거. 내일 할지도 몰라요 둘째날에.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 분은 . 사실 이름 보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청년 운동 단체 노동운동 이런 게 나와서 비청인가, 하고 봤는데 열여덟이고 해서... 어디고 하니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데 어디 계신가요?

덕산 : 아 좋네요... 네 닉네임은 덕산이란 닉네임 쓰구요. 청년유니온 소개하자면, 청소년단체들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거 같은데, 386세대들의 무관심에서 나온 게 청년유니온이라는 청년노조인데요. 20, 30대들을 위한 단체나 노조가 없더라구요. 청년유니온이 최초의 청년들을 위한 노조라고 할 수 있구요. 상반기에는 주로 최저임금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전국 편의점 돌면서 편의점 알바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도 했구요. 이번년도 안에 청년유니온에서 책이 나올 거 같아요. 다양한 노동자들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 모아서 이번 년도 안에 책도 나오고. MBC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청년 유니온을 따라다니면서 활동하는 거 촬영을 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다다음주 금요일에 2부작으로 MBC 스페셜에 나와요. 많이 봐주세요.

엠건 : 평소에 노동 문제 관심 많으신 거예요? 청소년 맞으시죠?

덕산 : 원래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독립하게 됐는데 독립하다보니까 가장 고민되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최저임금 4110원인데요 밥 한끼 제대로 먹으려면 5000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 밥한끼 제대로 못 먹는 실정이지요. 알게 돼서 노동운동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엠건 : 알리바바 보고 어떤 느낌 드셨나요?

덕산 : 알리바바는 10대들의 노동에 대해 하는 거 같은데, 청년유니온은, 10대 팀도 있지만 20, 30대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엠건 : 끝으로 여기 온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으세요?

덕산 : 그냥 별 거 없고, 재밌게 놀아요.

엠건 : 네 재밌게 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이루 : 10대인데 왜 20 30대 주로 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덕산 : 제가 20, 30대가 되어서 겪을 현실이니까요. 10대 때도 겪고 있지만... 20, 30대가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더라구요. 지금부터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엠건 : 이 친구도 힘들게 왔어요.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태진이란 친구인데 이 분도 문어발이라서, 본인이 이야기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태진 : 안녕하세요 오늘 9시에 출발해서 4시에 도착한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좀 전 분 애칭이 덕산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서 왔거든요. 제가 제천 간디학교 1기 졸업생인데요. 다시 덕산 농촌 돌아가서 지역 사업 하다가 퇴직하고 올라왔습니다. 다문화센터도 하고 마을 배움터도 하고 지역 아동센터, 마을 빵 카페도 열어서 커피도 내리고 하다가 왔는데요. 저는 청소년단체 활동이라고 한다면, 사실 2007년에 잠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아수나로 친구들이랑 미학혁명이라는 집회도 했고, 발가락 정도 담그고 해서 지냈는데 이번 거 계기로 소개받아서 오게 됐구요. 저도 두근두근했어요 참 여기 오는 게. 기대가 됐구요. 저는 출신이 대안학교 졸업생이기도 하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대안교육 그쪽에서... 단체가 뭐한다고 이야기한 뭐해서 어느 단체에서 누가 왔다고 안 하고 그냥 나와서 주절주절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 홈스쿨러들까지... 대안적 교육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대안교육청소년네트워크라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저는 거기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대안교육 졸업생들, 20대 초반 친구들과 함께 졸업생 모임을 하고 있구요. 저희 모임이 본격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같이 모임하는 친구도 와보니까 와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IDEC 2009 코리아라고 세계대안교육 민주교육 한마당 이라고 했는데 1년에 한번씩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마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개최지가 한국이어서 청소년기획단 꾸려서 했어요. 그게 이어져서 대안교육청소년네트워크가 꾸려졌구요. 만나소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만나고 나누고 소통하자, 라는 행사인데. 3회 째 하고 있어요.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교류가 없다는 문제의식 교류하고 싶다는 희망 속에서 하는 행사구요. 졸업생 모임 같은 경우 진로 고민하면서 학벌 사회 바뀌어보고 학력이나 경쟁이 아니라 대안적인 삶, 진짜로 행복하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보자는 건데, 굳이 학교라는 울타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배움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JDEC 이라고 IDEC의 사촌격인데 일본 IDEC 가보니까 대학교를 만들어서 청소년 청년들이 직접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모든 운영과 그런 걸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문학 캠프 2008년도에 한 걸 계기로 졸업생 모임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되진 않아요. 아쉬운 게, 인권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에 우리 권리 주장하는 활동에 적극 목소리 내면 좋겠는데 저희가 소극적이예요. 눈 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 학교 안에서는, 문제도 많겠지만, 일반 학교보다 그런 문제에 덜 시달리고 해방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 이런 자리들이 많아져서 만나고 문제들을 나누고 같이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난다 : 앉아서 얘기 듣고 있는 우리도 점점 길어져서 힘들지만 저쪽에서 타자 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까부터 몇 시간 째 치고 있어서 힘들다고. 짧게 끊으래요 계속

엠건 : 마지막입니다. 제가 소개할 텐데요. 활기라는 모임이 새로 꾸려졌어요. 올해 3월에 청소년 활동하는 활동가들이나, 같이 활동한 인권단체들 많이 모였거든요. 활기 안에 있는 어떤 모임이 PPT 발표하고 면접 좀 보고 할 일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활기를 소개해드리는 데 도움 될 거 같아서 앞부분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청소년활동 소개하려고 했는데 청소년활동가가 뭔지.. 낯설잖아요? 나름 했던 말은, 청소년으로서 직접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심각한 교육, 학교현실은 물론이고 정치적 권리, 노동권 등등....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활동기반 조성 모임은 기존에 청소년활동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팀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게 활기를 만들게 된 사연이나 이유 그런 건데 보시면 공간도 없고 센터 같은 데서 미리 공간이 준비된 곳도 있지만 본인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해도, 아수나로 같은 경우가 청소년들이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사무실은 거금이 들잖아요. 차비나 밥값도 용돈으로 한다고 치지만 나중에 부모님이랑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지원 끊기면 활동하기 어려워지고. 이것저것 공부할 필요성도 많이 느껴지고, 공부도 하고 싶어지고,



집회나 캠페인 할 때마다 돈이 들어서...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다 엄마 아빠들 터치를 하잖아요. 왜 안 될까, 없을까, 꾸념만 하지 말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걸 유지하지만 말고 바꿔보자 우리가, 활동하고 싶고 할 거라면 할만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청소년 활동의 빈곳을 채우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금조성팀이랑 교육체계팀 있는데, 청소년활동지원기금을 마련해서 공간도 마련하려면 하고, 활동가들 개개인들에게 차비나 밥값 지원도 점차로 늘려가고 그런 걸 모색하고 있구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활기가 태어나게 된 사연, 지금 청소년활동의 사연, 다른 활동들도 마찬가지로 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우리가 활동할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고 절실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기 끝내고 청소년 활동 바이바이 할 거 아니고, 앞으로 계속 활동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장 받기 위해서 현실이 준비 안 되면 뜯어고쳐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서 하고 있구요. 취지 공감하시는 분들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마무리 프로그램 준비한 게, 이런 프로그램 하면 소수만 말하게 되잖아요. 계속 한 마디 안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궁금한 게 있는데 부끄럽거나 쑥스러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 나눠드릴 텐데 궁금했던 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적어주신 걸 전시해둘게요. 그거 보시고 피드백하시고 하면 될 거 같아요.

난다 : 여태까지 다양한 활동들 소개해주신 것, 봤던 것들 중에 미처 못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활동에 대해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런 걸 종이에 적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꼭 짚어서 뭐가 더 궁금해요 이런 것도 좋구요. 이런 활동 참 인상깊었다 이런 것도 좋구요. 저녁 먹고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중에 감상 느낌 의견 질문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4. [chat 5] 오락(五樂)하기

### 첫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환승센터>

‘활동’이라는 걸 한다. ‘청소년 인권’이라는 걸 말하면서,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 했을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활동’이 별거인 줄 알았다. 나같은 평민은 감히 넘보지 못할. 그래서 처음엔 죽어라 했었다. 따라잡고 싶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신촌에서 했던 청소년 노동인권 직접행동.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를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촌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구호를 외쳤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던가? 난 친구 따라서 활동 시작했다. 친구 따라서 회의 가고, 친구 따라서 글도 썼다. 열심히, 열심히. 나도 ‘별 것’을 하고 싶었다. 있어 보이고 싶었다. 나는 10대지만 글도 쓰고, 회의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제는 잘 모르겠다. 정말 멋있게만 보였던 활동이 사실은 짜질하고 공상맞고 더럽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이게 스펙은커녕 당장 1년 후의 미래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활동을 하면 세상이 분명 바뀔 거라고 믿을 정도로 순진하지도 않다. 대체 이 힘들고 정신없고 몸은 점점 피폐해져가는 활동이란 걸 왜 손에서 놔버리지 않는 걸까. 죽어라 한다고 해봤자 기껏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라도 되면 잘 된 거라고 평가하는데. 어차피 다 안 될 텐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활동 왜 해?”라는 질문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오늘 있을 회의를 위해 가방을 챙기는 것은, 나에게서는 재미있어서다. 주변에 다른 활동하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회의 하면서 이거할까 저거할까 떠드는 것도 재밌고, 이것저것 해보는 직접행동들도 재미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날 이끌어온 것은 그 재미였다.

그렇다면 재미로 활동해도 되는 걸까?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오니까 활동하는데 뭐 굳이 이유까지 필요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도 난 내가 활동하는 이유도, 그리고 또한 다른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이유도 꽤나 궁금하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다.

### 내 인생의 환승센터 속기록

한번의 계기.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

어쓰 : 친한 친구들이 다 활동하다보니 재밌어보였고 함께하고 싶었다. 회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멋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 한지 반년정도가 됐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다. 또래 동료들은 피터지게 공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후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고민이 많이 든다.

슬럼프같은 게 아닐까. 활동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활동을 이어가야 하니까. 이런 거 하면서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대학 원래 관심이 없는 건지. 대학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대학평준화, 일제고사 반대하는데 대학가는 게 문제있는 걸.

어쓰 : 활동 왜 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중졸, 고졸 친구들도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활동하지만 그런 세상이 빨리 올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활동한다는 건 굉장히 우끼다고 생각한다.

민다영 : 책 찾아 보고 동아리를 함께하는 정도인데.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동아리를 만들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주변 친구들을 모아보니 꽤 많았다. 활동하면서 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현장이 눈앞에 있고. 활동을 하면서 영향을 미칠 때 행복했었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활동이란 질문에 대해 답해보도록 하자.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 게 없는데 왜 하는지 궁금하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 좋은 자리를 잡고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다영 : 타인을 위해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쓰 : 나도 재밌어서 활동한다고 여기서 썼는데. 솔직히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있다. 청소년활동가들이 흥미, 재미위주로 한다고 비판도 받는다. 활동이라는 것이 재미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 부모님은 활동하는게 도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재미위주로 한다면 도피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도피하면 안되는거예요?

공부 - 활동이 선택의 여지인건데 왜 도피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고 이것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홍봄이 : 저는 선생님이 추천해서 했다. 인권위에서 교과서 안에서 인권침해를 찾는 거였는데. 아빠가 처음엔 찬성했다.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수나로 가입했는데 아빠가 빨갱이 집단아니냐고 뭐라했다. 친한 전교조 선생님이 있어서 계속 만나고 다녔는데. 부모님이 왜 만나냐고 물어본다. 솔직히 여기 속이고 왔다. 학교선생님이랑 동아리 엠티간다고 하고 왔다. 부모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면 부모님이 맘에 안들겠지만. 의견을 따르면 공부하고 싶지만. 나는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솔직히 비전이 없지 않나. 요즘들어 많이 혼란스럽다.

뭐 먹고 살래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 할 말이 없다. 두 달 동안 집에서 나와서 생활했는데 몸은 피폐해졌고. 8킬로그램이 빠졌다. 활동하면서 받는 돈은 인터뷰나 글 써서 받는 돈이 전부인데 내 삶은 누가 챙겨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자퇴생이고 대학을 가지 않을 생각이 들고 있다 보니. 늘 고민이다.

동정심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민이라고 했는데. 청소년활동가들의 경우는 나한테 오는 현실과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현실에 대한 동정인데. 내가 힘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좋아 보이고 동정이 없어지는 것 같다.

슬럼프 빠지게 되면 어떻게 극복해요? 땀초를 씹으로 씹어 먹어요.

그래도 활동이 재밌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홍봄이 : 요즘 대학 나와도 취직이 잘 되지도 않는데. 뭐 먹고 살지가 고민이다.

마디 : 활동가는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하는 거 같다. 그래도 인권활동을 한다는 것은 더 신경을 써가며 생각하는 분야도 하는 것. 어디 나가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다. 먹고는 살고 있을 거란 생각한다. 분명히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쓰 : 이런 말을 하면서도 돈이 걱정이고 5년 후 굶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헛된 이상이라도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시련이 올 때 많은 청소년들이 뭘 해야 하지 고민하지만.

다영 : 주변 친구들은 목표대학만 있고. 과도 없다. 그때서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뒤늦게 찾는 거 같은데.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즐거운 미래 : 실제로 별로 안하고 싶고 한의학을 하고 싶다. 한의학 책도 많이 읽었다.

각자 꿈이 있는데 이거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너무 싫고 이 사회가 너무 싫어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활동이라는 것이 뭘 위해서 한다기보다 어떤 것이 보기 싫어서 하기도 한다.

활동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

재미가 뭐예요?

활동하는 자체. 공부는 하기 싫어도 하지만 활동은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다.

10년후에도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왜 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당성을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

홍봄 : 초등학교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거치면서 다 헤어졌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힘들어진다고 연락이 온다. 솔직히 공부하기 싫은 상태인데. 야수나로 글같은 거 보고 이야기해주면. 공부안해도 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뭐 해먹고 살지가 막막하다고 이야기 한다. 대학은 가기 싫고. 한 친구는 돈을 벌고 싶고. 한 친구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하라고 한다.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한 친구는 지금 래퍼인데. 지금 너 때문에 자기가 바뀌었다고 고맙다는 연락이 왔는데. 뿌듯했다.

환승센터는 특별한 의미 같은 게 있어요?

이 주제를 나한테 주고 쓰라고 했다.

닭알 : 야자 11시까지 하고. 한달정도는 미칠 듯이 싫은데. 지금은 적응이 됐다. 신문기사에 야수나로를 봤고 관심있어서 온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일반계고 학생들과 활동가들 사이에 괴리가 큰 것 같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완전 인생을 걸고. 하니까 많이 차이가 난다.

마디 : 만약에 활동이란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공부가 당연히 해야하는 길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재 활동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활동이라는 것이 어렵고. 사회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사로운 시선.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많이 알려져 활동을 보편화시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어쓰 : 학생들한테 너 공부 왜 해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다.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본다. 공부 이외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마디 : 공부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해야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활동을 많이 해야지 하는 이야기는 안 듣지 않나.

즐거움미래 ; 닭알 이야기가 계속 신경쓰이는데. 강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면 녹아서 없어지는데 활동하는 사람들과 학교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 괴리가 큰 것 같다.

다영 : 중도가 교내동아리 일수도 있겠네요. 학교 친구들에게 직접 알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쓰 : 죄책감을 들 때가 있다. 내가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만 재미없는 공부만 해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학교에서의 공부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반계고 친구들에게 할 수는 없다.

다영 :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차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어쓰 : 일반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존경심이 들 때가 있다. 난 못 버티고 나왔으니까.

즐거움미래 :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인데. 우리 고생이고. 학교친구들도 고생이고 누가 더 고생일까. 사람들에게 욕먹고,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부러 관심받고 튀기위해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사이코 끼가 있는 게 아닌가.

마디 : 답답한 학교보다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인간미가 있다. 모이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웃어도 웃는거 같지 않고 가식적이다.

하우 : 저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데. 탈학교 청소년들이 만나서 캠프가는데 (학교너머) 그냥 학교너머는 인문학캠프같은 거여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보고 그렇다.

어쓰 : 활동이 뭔데. 성명서를 내고 이런 게 활동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인문학공부를 하고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들을 잠깐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는 것이 활동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끈대...의 말.

패스(10분)

마디 : 돌아가는 사회가 싫어서 모인 것은 분명하다.

어쓰 : 요새 열심히 하는 게 1주일에 한번씩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 좋다. 활동한답시고 했는데. 나는 빈곤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인권교육센터 들에 들어가고 싶다.

활동 공감미 되는 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변한다거나, 영향을 받는 것도 좋다.

이끌어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고. 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1년전만해도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좋기도 하고.

퀴즈쇼..

즐거움미래 : 우리가 지금타고 있는 버스가 좋은 건가?

마디 : 리무진이다.

다영 : 환승이라고 하면 갈아타는 느낌이 있는데 살고 있던 삶에서 뭔가 바뀐 것도 있지만 더 추가된 느낌도 있다.

즐거움미래 : 티코에 티코하나 더 얹은 느낌(웃음)

또 하나의 생각이 더 느는 것이라 생각도 한다.

민경 : 활동하면 나중에 더 커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아버지는 전교조 선생님이다. 학교 문제에 대해 토론을 많이 한다.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하는데. 수학선생님이신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교사한테 과외를 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체벌에 대한 토론도 했다.

## 두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맛싸>

처음에 활동을 접하게 되었을 땐 모든 것이 다 신기했다. 오승희(오답승리의 희망)이라는 잡지? 신문도 제목부터 신기했고, 집회도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 기호0번 청소년후보 활동이나 일제고사반대 등교거부 활동 등…… 이런 활동들에서 하는 주장, 활동방식(그 주장을 풀어내는 방식) 모두 다 신선하다고 느껴졌다.

흠 그중에서 가장 재밌고 신선한 활동했을 때 딱 생각나는 건…… 휴대폰금지조례 반대하는 플래시 몹이다. 작년 8월 말쯤 휴대폰 금지 조례를 경남에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서울과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한창 이슈가 되었을 때 했던 활동이었다. 해가 진 후 저녁시간에 15명 정도가 만나서 핸드폰을 조명삼아 개사한 노래를 불렀던 활동이었는데, 여러 명이 흩어져 있다가 반짝 모여서 노래 부르고 다시 흩어지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또 막 광화문광장에서 하고 청계광장으로 옮겨가고…… 경찰들을 농락하는 짜릿함까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재밌는? 신선한 활동들이 나를 계속 활동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일종의 활력소……?

근데, 점점 활동을 하면서 이런 찢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찢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꼈다. 특히 난 아이디어 같은 거 잘 못내는 스타일이라 엄청 힘들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쯤 힘들었던 것 같다. (워 막상 끝내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기억에도 남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좋은 아이디어나 나름 신선하다고 느낄 활동들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게 신기하다.

난 활동가 대회에서 그리고 이 주제별토론에서 다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재밌었던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듣고 싶다.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서로 새로운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내인생의 맛사 속기록

이야기꾼(거부기)의 여는 이야기>>

내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활동, 신선하게 여겼던 것들 나누는 시간.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아수나로 활동 시작할 때 모든 게 신기했다. 회의하는 것조차.

제일 생각나는 건 휴대폰 금지 조례 반대 플래시몹 했던 것. <나는 심장이 없어>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청계광장 가서 휴대폰 들고 불렀던 경험. 경찰을 농락하는 재미가 만만치 않았다. 플래시몹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노래부르고 또 흩어지고... 우리는 청계광장에 모였다가 흩어져서 다른 데로 갔는데 경찰이 우리가 청계광장 있는 줄 알고...

은총 : 일제고사 UCC 만들 때 생각난다. 일제고사 동영상 촬영이 하루만에 이루어진 건데... 학교 컴퓨터실에서 몰래 보다가 혼자 빵 터져서 웃고.. 뭔가 해냈다는 기분,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기호0번 청소년후보 활동 할 때, 수원역에서 포스터 붙이고 있는데 방송에서 "기호 0번 역 밖으로 나가세요!"라는 방송이 나오더라. 갑자기 홍보 당하고... 우연히 터지는 일들이 재미가 있다.

MBC :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서 음악방송 맡고 있다. 이주노동자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 인권에 대해 관심이 조금 갖고 있었을 뿐. 일반학교 다닐 때 인권에 대해 얘기하자니 너무 두려웠는데... 대안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달구벌고등학교... 근데 교사들이 일제고사 관련해서 부당하게 해임당하면서, 학교 안에서 징계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경험이 새롭다. 그분들이 해임된 이후에 학교 밖에서 교실을 열어서 수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른 대안학교로 일자리 옮기는 걸 준비중이시다.

음악방송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눈높이 맞춰서 진행하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들 모두 인터뷰 해서 방송을 했다. 9명 후보 중에 7명 인터뷰 성공. 후보들 캠프 쫓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재미있었다. 원래 방송활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대구에 공동체라디오 생겼다는 얘기 듣고 "나도 디제이" 코너 참여했다가 방송도 맡게 되고...

밖의마왕 : 2007년 7월쯤 활동 시작했는데, 고2가 되었을 때 학생회 부회장을 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학생회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한계가 많아서... 언론동아리 친구들이랑 모여서 학생인권에 관한 11개 요구안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교문지도의 편의를 위해 후문을 폐쇄했었는데, 후문을 개방하라는 요구도 포함해서... 1, 2학년이 780명 정도 되는데 500여 명 서명 받았다. 근데 그 서명운동을 한 게 걸려갖고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고... 한달 후쯤에 7월 10일인가... 촛불 대량으로 구해서 학내 집회를 열려고 했는데 당일 발각이 됐다. 학교에서 비상 걸고 각 반으로 들어가서 학생들 못 나가게 감시하고... 애들이 교실에서 감금당한 셈. 그래서 아수나로 활동가들이 정문 앞에서 촛불 들고 피켓팅 하고 그랬고... 암튼 그 사건이 경남 신문들에 여럿 보도됐다.

학교에서 징계를 시도해서, 1인 시위도 하고 교육청 민원도 넣고 그래서 징계가 8월쯤 나왔는데 '원래 사회봉사 5일인데 교내봉사 3일'로 줄여주겠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각서 내면 봐주겠다 그랬는데 거부하고. 그러고 나니까 학교에서 더이상 건들지 않더라.

3학년 되니까 학교가 다시 개편 되더라....

그렇게 징계 받고 집안에도 활동했던 거 다 까발려지고... 2008년 여름이 활동하면서 가장 파란만장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청소년인권행진을 준비하던 때라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내 인생의 맛사라기보다는 파란만장이었던 시기.

학생회 활동이라는 게, 내가 다닌 학교가 일반계 남고인데... 학생회가 완전 교장이랑 교사들한테 장악되어 있었다. 1년에 3-4번 열리고, 학생부장이 열자고 하면 열리는 상황. 학생회의 모든 권한을 학생회장이나 학생들이 아니라 교사들. 교사들이 단순 참관이 아니라 계속 지적질을 해대니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지 건의사항을 내는 것뿐. 학생들의 권리를 좀더 보장하는 방향의 안건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학생부장이 안건을 검열하니까. 학생회를 통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 가산점 1점 받는 것 말고는... ㅎ

파란만장한 시절이었지만, 그 당시 시위를 준비하고 2박3일 행진 준비하면서 별 일을 많이 겪었다. 온갖 복합적인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술 깨면서 다시 마셔보기도 하고... 그 당시가 아수나로 경남지부 활동력이 최대치를 올렸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규모는 작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집회를 열면 일반 참여자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모인 사람들끼리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해인 : 나는 특별한 활동 경험은 없고, 활동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여기 왔다. 지난해 청소년활동가 네트워크에서 했던 <청바다>에서 만났던 게 처음인데...이제 갓 만나나가는 시기. 이번 활동가대회가 내 인생에 앗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청바다에서 영화 찍으면서는 죽으라고 똥 기억밖에 없고... 영화 한 장면 잡으려고 몇 시간씩 죽치고 앉아서 학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도 재미있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앗싸가 생겼으면 좋겠다.

소금인형 : 정말 활동하면서 앗싸가 있었나? 2008년 촛불 때 키보드 배틀을 뜨다가 말발이 달려서 잘 안되더라. 그래서 책들 찾아보고 진보신당 청소년 캠프도 가보고 그러다가 청소년인권 쪽으로 왔다. 그때는 책 읽는 것 좋아하고 홍세화 씨 책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일제고사 시기가 됐다. 그때가 중3이었는데 전교조 분회장이 아이들 줄 빠따 때리는 그런 학교였다. 그래서 아수나로 친구들 찾아보고... 아버지가 인쇄소를 하시는데, 직접 일제고사 전단지 찍어갖고 친구랑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주위 학교들 뿌리고 다니고 그랬다. 우리 학교에도 뿌렸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전단지가 말끔히 치워져 있더라.

그 다음에 기계공고를 갔는데 학교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줄 두꺼운 연장 같은 걸로 애들 때리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아니다 싶었다. 이런 건 안 된다 싶어서 바꾸려고 학생회를 들어갔는데, 학생회가 열리지를 않더라. 학생회가 선도부 딱지 달고 애들 담배 뺏어 피우고 그런 일만 하고... 그래서 2달만에 자퇴했다. 머리 걸러 갖고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갔는데... 학생회 간부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버티기 힘들어서 자퇴했다.

아수나로 가서 그린마일리지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서 힘이 빠진다. 선전전 할 때도 그렇고.. 활동하면서 앗싸 이런 게 있나 싶다. 그래도,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중요성 느끼고, 얘기하다 보면 배울 게 많아진다. 그게 나한테 '앗싸'다.

지난해부터 우울해서 자해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사람들이랑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게 좋다. 그게 나한테 기쁨이다. 뭔가 꼭 해야 할 것 같은 건 있는 것 같다. 생각은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 걸 못했는데, 그런 걸 배우는 게 좋았던 것 같다.

밤마 : 지역에서 활동하면 사람도 좋고 서울이 아니어서 힘들지 않았나?

소금인형 : 다 우리 잘못이다. 사람들 안 모인다고 투정을 부리지만,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가 잘 못받는 게 아닌가 싶다. 회의가 너무 실무적이다. 우리 스스로 활동 성과를 부정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스크림 가면 쓰고 기호0번 홍보활동 다니고... 우리가 직접 오마이뉴스에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결국 남는



건 사람 아니냐. 처음 단체 찾아온 청소년들이 활동할 각오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분노를 갖고 오지 않나. 공감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는데...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대해서나, 우리가 했던 경험을 나누는 시간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문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청소년활동가들이 "자퇴를 하지 않고 스쿨어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혜원 : 스쿨어택 활동이 제일 기억난다. 학교 앞에 직접 찾아가서 선전전도 하고 서명도 받고... 기호0번 청소년후보 활동. 홍보 영상도 만들고.. 하고 나니까 너무 초토화돼서 골골 거리고... 1318 바이러스 기자 활동을 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 이야기나누는 게 제일 좋았다. 새로운 사람 만나게 제일 좋았다.

민영 :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 '살색' 이름이 '연주황색'으로 바뀌었거든. 어려운 한자어로 바뀐 게 너무 이상해서 사촌 언니들이랑 이름 바꿔보자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찾아가서 진정서를 내려고 갔는데, 진정 접수 하는 데스크가 너무 높아서 손이 올라가지도 않을 정도. 어른들만 진정서 내는 게 아닌데...

처음에는 각하됐는데 그게 언론에 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낸 '살구색'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그게 나한테 재미난,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살구색이 아니라 사람들은 살색이라고 계속 쓰니까 짜증이 나고, 내가 했던 일에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신문사, 방송국 앞 거리에서 '살색'을 자주 쓰는 용품, 속옷이나 스타킹 같은 걸 들고 이주노동자 분들이랑 같이 서서 "이게 왜 살색입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 그래서 업체, 신문3사, 방송사 등에서도 '살색'이라는 말을 안 쓰겠다는 약속도 받고... 며칠 전에 '살구색'이라고 찍힌 스타킹을 편의점에서 보고 기분이 좋아서 샀다 ㅋㅋ

어린 마음에 무서워하면서 진정을 냈는데, 그게 나한테 활동을 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던 것 같다.

아빠가 이주노동자 분들이랑 같이 활동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흑인들이랑 같이 친하게 많이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던 것 같다.

모람 : 아수나로 들어온 게 2009년 9월. 수원지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아직까지는 없다. 인간관계를 새로 만든 게 좋았다.

풍경 : 비청소년이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서 활동한다. 지역에 청소년들이 거의 없어서 다른 지역 청소년들은 어떻게 모이나 궁금해서 왔다. 스쿨어택이라는 말이 너무 신선해서, 아수나로 활동도 관심 있게 보고 그러더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 촉구 서명도 학교 앞에 받으러 다니고...

학교 앞에서 선전전 했던 사진 아수나로 카페에 올리니까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수나로 전주지부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됐다. 아직도 '학생답게'라는 인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권력관계를 넘어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청소년 시절에는 교사한테 반항 정도 했지 이렇게 바꿀 생각은 못했는데....

개굴 : 나는 앳싸라고 할 만한 활동이 많은데, 파란만장청소년인권전국행진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 스쿨어택은 원래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두발문제를 얘기하면서 학교 안으로 진입했어요.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옥상에서 전단지가 뿌려지는 걸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전단지는 몇 장 안 내려왔지만 학교 안의 이야기를 할 때 3주체 외에는 외부인이라고 하는데, 학교 안의 문제가 그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기하게 됨.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긴장감이 있고 무서웠음.

두번 째는 수원청명고로 갔는데, 교장실로 진입함. 교장이 독단적으로 두발규정을 개정했는데, 여학생들이 야자시간에 집회를 하려다가 해산당함. 스쿨어택으로 인해 청명고 규정이 바뀌기도 함. 학교의 담벼락을 허무는 활동이 재미가 있었던 듯. 긴장감이 있었지만, 학교를 찾아가고, 항의 전화도 하는 것들이 재밌었음.

전국행진은 일주일 동안 돌았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봉고 하나에 트럭 하나로 돌았음. 그 당시에는 아수나로 지부 활동이 거의 없을 때였는데, 막상 지역들에 갔을 때 만날 청소년 단체들이 없었음. 우리가 갔을 때 지역의 중심가에서 집회도 열고 서명도 받고 언론에 관심도 받았는데, 쭈뼛거리며 청소년들이 찾아왔었음. 학생인권법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 거리를 다니며 청소년들을 만났던 게 좋았다. 어른들에게 기대서 하는 활동이 아닌 독자적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청소년활동의 매력인 듯 ㅋ

### 세 번째 이야기 <내 인생의 밑줄 찍>

#### 침묵한 채 ‘그 공부’, 침묵하지 않고 ‘이 공부’

우리는 침묵한 채 ‘공부’했다. 수업시간 제 1법칙, 입을 다물 것. 제 2법칙, 눈은 선생 얼굴을 향할 것. (그가 말하길, “내 눈을 바라봐. 네 성적 오르고”) 제 3법칙, 달리 생각하지 말 것. 그냥 듣고 외울 것. 사회에서 ‘공부’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지,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주어진 것의 답습, 지어진 사회구조의 유지, 지랄 맞은 일상이며 영원하라. 뭘 소리지..... 뭐였더라?

그러니까.

#### 2010년 봄 - ‘그 공부’ 에 대한 단상

어차피 ‘그 공부’는 대다수 평범한 인간들은 해봤자 소용없다. 농어촌 고등학교에서 전교 등수 중위권에 동지를 튼 내 동생은 국영수가 안 된다. 양기과목으로 내신은 그럭저럭 따지만, 모의고사만 봤다하면 시험지가 신세계라 한다. 그 말인 즉슨 정시는 글렀다. 논술교육 같은 건 받아본 적 없다. (농어촌이라니까?) 그녀는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사교육으로부터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현재 고2. 일 년 남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도권 대학은 글렀다. 우리 부모에게는 뺨도 돈도 없다. 잔혹한 얘기지만, 못 간다. 돈가스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다. 둘이 같이 울었다. 그 날 이후에도 그녀는 시험 때면 여전히 점수에 목을 맨다. 미래를 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공부’ 가 (그와 동의어쯤으로 여겨지는 ‘성적’) 사회 과목에서 흔히 떠들어대는 부익부 빈익빈을 되물림하는 주요한 사회 장치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한다. “잘 사는 놈들만 더 잘 살게 만들어진 더러운 세상“ 을 욕하지만, 알면서도 이놈의 공부를 더럽게, 못 놓겠다. 진짜 더럽다.

#### ~과거로 타임슬립~ ‘그 공부’ 와 멀어진 사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쳐야 하는 지 알 수 없어져버렸다. 누군가 학교를 ‘산업사회에 내보낼 인력’을 컨베이너 벨트에 실린 상품들처럼 제조하는 공장이라 정의했다. 우리가 성적에 목매고 대학에 목매는 그 과정들로 인해, 결국 우리는 사회의 강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스스로 우리 목을 쥐어주게 될 거라 했다. 선생님 손에, 사장님 손에, 국회의원 손에, 기업의 손에, 우리 목이 달랑달랑. 지금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고 나니 더 이상은 시험기간마다 교과서 요약정리하고, 시험지 채점하며 점수 몇 점에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나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 나머지 나를 ‘상품’이나 ‘기계 부품’으로 취급할 순 없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까지 내어줄 순 없었다. 니들이 얼마나 잘났든, 니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현실’이든, 그럴 수는 없었다.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완전히는 못 났다. 이러다 나중에 진짜 후회하면 어떡해? 나중에 대비해서 일단 해둬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말다가, 났다가 다시 붙잡았다가.. 차츰 놓는 날이 많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나중에 ‘될 대로 되라지’라는 심정으로 무시했던 것 같다. 돌아보면 그 ‘불안’은 관습이었고 사회가 돌려 채운 족쇄였다.

무시하니까,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화가 났다. 너무 화났다. 그맘때쯤 나를 가장 괴롭힌 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 지 전혀 감이 안 잡힌 다는 거였다. 그냥 백지. 막막했다. 뭘 좋아하는 지도 모르겠고, 뭘 먹고 살아야할 지도 모르겠고, 첫 단추도 안 꺼지는 마당에 미래에 대한 차곡차곡 준비 같은 거 시작도 못 하겠고. 근데 진로를 정하라네? 장난해? 당신네 인생 아니라 이거지?

내 삶을 누가 다 빼앗아 간 걸까. 박탈감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내 삶을 챙길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시간, 날, 해. 너무도 많은 것들이 (나는 사람이라는 자각마저) 처음부터 ‘박탈’ 되어있었다.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를 속였다. 미친 듯이 공부하고, 대학 바늘구멍 통과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노후 대책 보험 들고…… 처음부터 이 길 밖에 없다는 듯 몰아붙여놓고, 그 이면에서는 이 길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유지시킨다. 우리는 공부하고, 어찌할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자기기만 속에서 질서에 편입되길 욕망하고, 나보다 더 공부 못 하고 못 살고 못난 다른 이들을 짓밟은 위에서 결국 이 모든 구조를 유지시킨다. 예전부터 그러했으니, 앞으로도 그러하도록.

### **침묵 하지 않는 공부도 세상엔 있다**

그 공부가 아닌 다른 공부 얘기를 해보자. 세상이 왜 이따구로 만들어졌으며,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있으며, 등등의 얘기들이 있다. (근데 이런 거 안다는 애들이 좀 잘난 척이 심하더라. 채수 없다. 잘난 척 목적으로 공부 안 하도록 조심 또 조심하자. 음음. 삐뽀삐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질서를 이룬 채 구성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여성주의(페미니즘)’도 있고,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 일상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되는 지 알려준 청소년 인권 활동도 있다. 공부라면 공부였다. 내 좁은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경험을 했다. 배웠다.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멀리하게 됐고, 활동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생각하게 됐다. 어쩔 땐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야할 지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얻고 싶은 맘으로 책 같은 걸 가끔 가다 붙잡고는 한다. 그냥 조금이라도 나를 깨워보려고, 옆구리 쿡 찌르면서 그만 벗어나 자고 일어나라고 하려고, 정신 차라자고 하려고,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 이 공부는 침묵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 안에서 끈임 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내 안의 시끌시끌함을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 소리가 찾아들지 않으면, 아마도 계속 활동을 하지 않을까? ‘침묵하지 않기’에 대한 선택, 그러한 활동을.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공부는 내 안의 침묵을 깨주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초중고 다 공립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때는 학원도 다니긴 했지만 성적 유지하면서 사실 노는 것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사교육 끊고 바로 성적 추락. 중학교 들어가서 흥미를 잃음. 놀기만 했는데 힘들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 학교를 안다니고 싶었지만 중학교는 다니고 있어서 일단 졸업하고 어영부영 인문계 고등학교도 다녔는데 실망. 사회나 세계사를 좋아했다. 그 과목 선생님이 재밌으셨다. 좋아하는 분야는 간간히 들여다보는데 수학, 과학, 영어는 별로 손에 안 잡힌다.

완벽한 공부는 없는 것 같다. 일반학교에서 하는 주입식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대안교육, 대안학교도 완벽한 대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성인 것 같다. 2년 동안 연필을 들지 않다가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몇 개월 집중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다. 일반학교 다녔어도 똑같이 공부했을 내용인데, 검정고시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하니 재밌었다.

진짜 싫어. 이우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인가 받았고 내신도 다 있어서 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도 든다. 하지만 능동적이고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부분이 다른 것 같다. 공부에 대한 의미.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길을 가야 하는 게.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걸 보고 의미 찾는 일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맞아요. 성적도 떨어지고. 난 왜 이려고(의미를 찾아 해매고) 있지?

부모로부터 엘리트 유전자란 소리도 들으며 어느 정도 성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 어느날 말씀을 드렸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핑계 아니냐고, 안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학교는 너무 학생들을 오래 붙잡고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누군가. 제가 학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공부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는 것. 아까 덕산님이 말씀하신 검정고시도 목적이라기보단 수단이 아닐런지? 아무튼 우리조차도 공부라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과연 학교 졸업장이, 검정고시 성적이 그 사람의 공부실력을 알려주는 증명인가.

공부라는 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게 아닐까? 나름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과 상의 끝에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 지금도 다니는 중.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자격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과 굉장히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검정고시를 따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조언해주신 게 공부라는 개념이 일반학교에서 말하는 성적이 다가 아니라. 노는 것도 공부고 밥 먹는 것도 공부고.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실력은 중 2~3학년 수준밖에 안될 듯? 그래도 수학이 재밌기도 하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이 건물 하나에서 1교시, 2교시, 야자까지 날더러 뭘 더 느끼라는 거지? 내가 성장할 기회나 시간을 박탈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소년으로 만들어진. 활동하면서 생전 처음 하는 것들을 많이 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듣고. 수업시간에 왜 집중하면 안돼?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고정관념이 와장창 깨지기도 했다. 예전엔 이런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술도 한 잔하고 얘기 듣고 하는 것도 공부라는 생각이.

왜 그렇게 맨날 교과서만 보고 죽어있는 공부만 하냐고. 그 시간에 딴 거나 하라고 말씀을. 너흰 지금이 기

회야. 지금 잘해야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어. 그 소리 듣고 공부를 한 건데 아버지께서 완전히 다른 말씀이. 인천에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있는데 노숙자들을 위한 밥집. 봉사를 하라고... 학원도 다녔는데 시간낭비 같고 싫었다. 새로운 세계였다. 학교에서 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참 좋았다. 고등학교 진학해서 왜 이려고 있지? 인권변호사가 꿈이었는데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변호사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졌는데 선생님들 말씀. 잘할 수 있어. 다시 (성적이) 오를 거야. 다른 공부를 찾아서 아수나로 가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10등, 20등 떨어지다가 아예 흥미를. 아버지는 아예 봐보라고. 선생님들은 인생에 뭐 고민이 있니 계속 독려 + 로스쿨, 좋은 대학 등으로 압박. 내가 궁금한 건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공부였는데, 이거 해야 하지 않아? 저거 해야 하지 않아? 강요. 시험기간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쳤다. 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무기력해졌다. 옛날엔 공부 잘한다 소리 듣다가 내려간 성적표를 보고 있자니 뭔가 하나를 딱 잡은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간 언니. 가족들로부터의 압박도. 어느 하나 선택할 수 없는 공허함과 답답함. 학교(대학) VS 활동

궁금해요. 공부란 질문이랑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세안세다가 이렇게 길을 찾는 것처럼. 지금 자신에게 나에게 대해서든 밖에 무언가에 대해서든 물음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중학교 때는 수업하기 싫으면 배아파요 땡까고 영화보러 가고 살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상한? 조금만 잘못을 해도, 예를 들어 조금만 지각을 해도 부모한테 연락이 가고. 못버티겠다 싶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많이 달랐다. 수업시간에 딴짓을 해도 딱히 뭐라하지 않고. 한국 학교에서 문제시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도 물론 구조적인 문제, 교권(이라고 할만한 게 썩다)도 있고 했지만 한국보다는. 돈이 없고 글로벌 위기로 귀국. 다시 학교 가긴 싫다. 부모님하도 싸웠다. 가기 싫어하는 건 알지만 학교는 다녀야 사람답지 않겠느냐. 대학 갈테니까 그 이후론 간섭하지 말라. 하고 대학에 갔다. 낭만적이진 않았다. 수업 분위기도 억압적이진 않을거다. 란 환타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렇지 않았다. 12년동안 잘 길들여져서 온 아이들. 교수가 막 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생각이랑 달라도 부조리한 것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칙으로 숙박당했다면 대학에는 그런 것들은 덜하지만 서열, 취업, 돈 등으로 압박.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도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강요. 순응하게 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한 강의실에 앉아있는데 60명이 되는 학생들이 교수가 적어주는 것만 받아적은 게 싫고 동화되기 싫었다. 그러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다가 중간고사 때부터 나가지 않았다. 전화가 와서 제적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을. 등록금 낸 게 있으니까 좀 다녀야하지 않을까. 그게 되게 막막하다.

나도 질문 있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나? 내 인생의 철학이나 신념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 스스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모르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확실함이 없어졌달까? 문득 문득 드는 질문. 무엇을 위해?

다들 용기가 있는 것 같다. 너 그럴 '용기' 있어? 다짐, 포기의 반복. 학교 안 다니는 분들, 단체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학교가 싫긴 싫은데 나오긴 망설여지고 나와서 뭘 할지도 모르겠고. 공부는 싫은데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무섭고 막막해서. 실천은 안 되고. 저 질문이 계속 나온다.

질문이 하나 더 생각났는데,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 것인가? 제가 한 선택들은 도피성이 있는 듯. 정면으로 맞서기는 힘드니까.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회피의 느낌이 든다. 그 다음은? 언젠간 맞붙어야 되는데?

저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적이라 생각하는데, NGO활동하면 촬영하는. 그래서 특성화학교의 영상쪽에 들어갔다. 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 특성화고등학교인지라 영상쪽에 더 많은 것을 배우는데 내신도 나오고 정규 수업도 있다. 그런 걸 할 때 생각해본다. NGO활동을 할 때 수학, 꼬부랑 글씨 이런 게 필요할까? 필요한 쪽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검사? 학습동기(목적)에 대한 부분이 낮게 나왔다. 부모님. 너의 신

분은 뭐냐? 학생증... 학생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공부. 그러니까... 저한테는 다가오지 않는다. 공부하기에 충분치 않은 이유.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 어느 시대든 교육자들은 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찾게 해주는 교육을 해줬으면. 그 의미에 대해 찾을 수 있도록.

책은 공부의 장 아닌가요?

아까 얘기 들으면서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의 공부란 건 자격을 위한 공부, 그 자격은 사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으로서의 가치를 매기는 공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들 자신의 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터인데. 공자님 말씀에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구조로 인해 생계를 위해 공부하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안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피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럼 너는 맞서고 있는 것이냐 되물었다. 주어진 길에서 나와 다른 길을 개척해나가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 공부 잘하던 친구가 학교를 나와서 벌써 4년차 농부. 농사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이 부분도 하려고. 주어진 틀에서만 벗어나면 진짜 공부를 찾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놓는 것이 배움을 놓는 것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 모든 배움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진짜 도피가 아닐까. 무조건적으로 외워야하고 공부해야 하는 게 부조리한 것이지.

이런 결정을 할 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순 없지 않냐는 말 많이 듣지 않나요?

나도 그 구조 속에 들어가던지, 그 구조를 깨뜨리던지.

활동이 공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배움하고 가르침을 구분 짓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 같다. 그걸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 경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학교 공부에 대해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

실수에 대해. 청바지를 날려버린 기억. 지금 하고 있는 활기.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다른 이들에게 끼친 영향, 책임에 대한 생각. 그때 배웠던 것 덕분에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듯.

그냥 부딪혀보고 그러다 망해도보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하더라도 회사생활 이런 건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정해놓고 가는 게 오히려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일지도. 막막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 네번째 이야기<내인생의빠염>

내 인생에서 ‘빠염’. ‘빠염’이 뭐냐고? ‘바이바이’랑 거의 같은 의미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고로 이 글은 내 인생에서 헤어지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확히 말하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그래서 ‘빠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처음 활동을 접했을 때는 이런 저런 것들이 마냥 좋았다. 2007년에 거의 처음으로 집회 같은 것에

참여했는데, 그 때의 신선한 충격과 두근거림이란. 아, 나도 뭔가 이렇게 내 얘기를 소리칠 수 있구나. 내가 그 동안 궁시렁 거리던 것이 그냥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답답했던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은 기분. 그 ‘처음의 기억’을 에너지 삼아 아자 아자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삶을 선택한 이후, 하루하루의 현실은 꽤나 많은 고민의 연속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뉴스나 언론 등에서만 듣던 “너네 같이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저런 애들이 다 비행청소년이야” 따위의 말들을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전해들을 때, 확 밀려오는 좌절감이나 무력감 같은 거. 애초에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낼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건만 참 거시기하다. 또 그런 거 말고도 뭔가 기획해서 똑똑똑 해보고 싶어도 당장에 부딪히는 재정적 어려움 같은 것도 활동을 하면서 ‘빠염’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이 사회를 바꾸고 싶다. 나는 처음 보는 어른도 청소년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반말’을 쓰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미성숙하니까 안 돼” 라고 말하고 그것이 먹히는, 지금 이 사회의 꼬라지를 바꾸고 싶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다, 싶은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위에 적은 저런 것들과의 ‘빠염’이 필요한 것일테고.

근데 나 혼자 ‘빠염’ 한다고 진정 ‘빠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로, 지금 이렇게 활동을 선택한 청소년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활동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회를 어떻게 좀 쿡쿡 찌르고 건드려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빠염’하고 싶은 건 어떤 거야? 뭐... 더 글로 쓰는 건 좀 지루하고 잘 생각도 안 나니까, 같이... 얘기해보자구염. 아하하하

난다 : 빠염을 왜 선택했나요?

사회에 불만이 많으니까... (웃음)

난다 : 빠염이라고 하면... 활동하면서 헤어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 적어보래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딱 떠오르는 건 그런 거였어요. 맨날 뉴스 같은 데서나 얘기하지, 처음 활동 시작했을 때도 그렇게 막 사람들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시선이 안 좋을 거란 생각은 했었는데, 그냥 뭐 하면서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 직접 듣는 경우 있잖아요. “비행청소년”이라고. 나한테... 나중에 커서 국회의원이나 되어서 바꾸든가 지금 설쳐서 뭐가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던 거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막연하게 생각한 게 현실로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싫었고, 두 번째로 생각난 거는 돈 문제인데. 돈이 항상 없는 거예요. 가난이여 빠염, 이죠. 회의를 하나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디 뭐 소풍 있어요 같이 가요 이랬는데 교통카드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돈이 없는 문제, 청소년 활동 자체도 돈이 없는 거예요. 헛도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획은 이렇게 거창한데 거창한 기획에는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이런 것도 있고.

김남궁 : 난 이게 싫었다, 이런 거?

날토 : 낙서장 해놓고 그냥 막 적을게요. 내가.

미지스 : 나랑 같이 해요.

코에바닷물 :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 시선도 있지만... 활동가내에서도 불만이 좀 있어요. 권위적인 부분 있죠. 같은 입장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지가 우위에 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권위적인 이런 게 되게 싫은 거 같아요.

김남궁 : 내가 활동 좀 오래 했다고, 괜히.

난다 : 선배문화?

미지스 : 얘기 꺼내기 어려운데? 저는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자퇴한 이유는 미술을 했었는데, 강제야자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담임이랑 대놓고 싸웠어요. 저희 집은 제 편을 들거든요. 저희 집도 아빠가 옛날에 마산에서 학생운동 하셨고... 담임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친구들이랑도 싸우고 이래서. 담임은 자기 기분 나쁠 때 저 불러내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해서 그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고등학교가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서 한 달 만에 자퇴를 했어요. 난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퇴했네, 또 뭐 인권활동하네, 웃긴다, 이런 식으로 개념 없는데 개념 있는 척하려는 애 취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 어느날부터... 그게 짜증이 났어요. 사람들 편견. 자퇴를 하면 인간쓰레기라고 보는 어른들이나... 그래서 한동안 낮에 돌아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보이려고 파마도 하고;; 웃기잖아요 사회가 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왜 내가 어른스러워 보여야 하고... 청소년인데 자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 진짜 뭐라고 하거든요? 그게 제 인생에서 많이 화두로 있는 거라서. 이거 보자마자 이거 해야겠다...

김남궁 : 안 좋은 시선이랑... 편견? 맞아.

코에바닷물 : 인권운동한다고 하면 무슨 어린 놈이.. 저희 학교 학년부장도; 공문을 보내주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넌 맨날 뭘 빼냐고 수업 안 듣고. 좋은 일 하러 간다고 하면, 무슨 좋은 일이냐고. 학생 때는 공부나 하라고.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바뀌기 힘들어요.

미지스 :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니가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이 돼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길은 죄다 막아놓고...

김남궁 : 뭐 얘기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뭘 얘기하냐... 학교다니니까 학교 다니면서 억압하는 거 있잖아요. 뭐 좀 할려고 하면 예체능 야자 빼기 하려면... 이과에서 예체능 하면 완전 이상하게 보는데. 예체능 갈 거면서 뭐하러 이과 와있냐고 문과 가지... 우리가 선택한 건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거랑. 자율학습도 말만 자율학습이지.. 수업도 우리가 선택 못하고 무조건 선생님들 배정 받으면 싫어도 무조건 받아야 하고 듣기 싫은데도 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싫어서...

미지스 : 밥 먹고 나서 모여서 담배 피잖아요. 그거 보고 생각난 건데, 사회에서 담배하면 안 되고 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오면 공개적이고 뭐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담배 피고 하는데 측은한 거예요 그게.



공현 : 그럼 여기서도 금지할까요? (웃음)

미지스 : 왜 이래 나한테...

코에바닷물 : 전 활동하면서 돈 걱정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속한 데가 그런 데니까... 저희끼리 MT 자주 가는데 한 번 가는데 300만원... 15명 1박2일 가는데 간식도 남아서 다 버려요.

공현 : 우와 우리 단체는 총회하는데 30명이 2박3일하는데 70만원 썼;

난다 : 나름 부산에서 쾌적한 공간이라고 빌렸는데 사람이 짹 차니까 더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 30명이 선풍기 두 대로...

코에바닷물 : 저희는 시청 회의실. 아니면 사용중이면 교육청 등등.. 저희들은 권한이 있어서 공공기관 같은 데서 권한 갖고 빌리면 돼요

난다 : 무슨 얘기해요?

코에바닷물 : 회의는 진짜 하는데... 되게 커요. 체계적인데. 초에 뭘 정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제가 처음 서류전형볼 때 수학여행 같은 거 확대하자, 해서 편의에 대한 거 복지 같은 거 했는데; 작년 의제가 복지였거든요? 연초에 의제 같은 걸 정해요. 장관 앞에서 모여서 뭐 얘기하고 방학 때 3번인가 가고.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라고 회의를 주구장창하구요 ;;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없어요. 회의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직접 나가서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런 식이에요.

반영은 작년 게 됐어요 . 이게 고등어님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랑 정부 밑에 차이는, 시민단체가 바꾸고 싶은 게 이만큼이면 정부기관에서는 제한이 있어요.

공현 : 그런 럭셔리함과 싸움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찢고.

코에바닷물 : 예. 정부기관 밑에 있으면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레포트 같은 거도 주구장창하고... 소개하고 발표하고 정부끼리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제한이 좀 있어서.

미지스 : 엘리트 양성소 같아

코에바닷물 : 뭘가 바꿀 수 있겠구나 해서 불끈 쥐고 아싸 시험 보고 통과했는데 싸움;; 불평불만 많죠. 세안 세다도 몇 번이나 나간다고 하고... 근데 제가 말려서. 저희는 위원장을 잘못 뽑은 거 같아요. 위원장이 형인데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책임감이 없다고 해야 하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얼마 전에 중요한 회의가 잡혔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저희끼리 회의해서 보내야 하는데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멍때리고 있고. -- 안에 내분도 좀 있어요. 친한 사람 몇 명끼리 서로 뒷담까고 안 친해요; 작년엔 대박이었대요 연말 마지막에 헤어질 때 다 울고 불고... 지금도 싸이 클럽 가면 방명록으로 연락하는데. 근데 저희들은 아무도.

미지스 : 나가서 활동하자고 얘기하면?

코에바닷물 : 그게 안 되는 게, 회의만으로 엄청 빠세거든요. 자료를 보고 만들어야 하고... 또 책임자 부분이 인천만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담당하면서 다른 일도 하시고. 참여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큰 직책을 맡고 있고. 부위원장만 해도 전국 청소년 기획단?? 뭐 그런 거 회장인가 그러고. 그리고 되게 소수잖아요.

공현 : 청참위 이름으로 뭘 하면, 사전 승인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난다 : 거기서 이명박 욕할 순 없잖아..

코에바닷물 : 운이 좋으면 대통령도 만나고

난다 : 헐 계란 준비해야 되는데

날토 : 저 분이 하는 활동과 너무 달라서 그런데; 내가 얘기하려는 게 이 분을 까는 것처럼 들릴 거 같아서... 솔직히 청소년활동이라고 말해놓고서는 활동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 해놓고서는 전혀 다를 게 없는 많은 모습들? 위계질서가 있고 돈 사이로 굴러가는 활동들이라는 게. 다른 썩는 사회들과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구요. 저는 활동이라고 말하면 진짜 일 중심으로 모이는 거... 뭘 이뤄내기 위해서 계급이 나뉘고 피터지게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노동하면서 시달리고, 정말 저는 그거 활동이라고 하면 그 활동 자체도 중요한데 그 개개인도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일에 잡히는 게 싫은 거야. 사람을 한 명 한 명 봐야. 기분이 안 좋아서 회의 망쳤다고 하는데, 책임감 없는 행동이긴 한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일 쪽으로 보면 그 사람 나쁜 놈이지 근데 저는 이 사람도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나하나 같이 살아가고 자기가 사는 것을 조금 덜 힘들게 살고 내가 좀 더 존중받고 살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개인조차 존중하지 않고 오직 일만 생각해서 하는 활동은 싫은 거예요.

코에바닷물 : 그게 위원장이라 말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다고 한 건데;

공현 : 저는 반대로 활동이라는 게 이 사회와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상과 빠얌하고 싶은데요.

게로게론 : 아수나로가 어느 정도 너무 허공을 바라보는 거 같달까; 아수나로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민주당 뭐 단일화 하네 마네 글 올라오면 까고? 그런 점에서 현실세계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바뀌어나가야 하는 거지... 혹 허공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남궁 : 아수나로 좀 무조건 반대하는 느낌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교원평가제 찬성이거든요? 그 찬성이 우리 의견이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의견이 더 존중돼서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차라리 좋게 바뀌어나가면 괜찮을 거 같은데, 그게 무조건 평가는 참고자료로 하고 선생님들끼리 평가제가 실제로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걸 고치는 걸 생각하는 게 나올 거 같은데 교원평가제는 안 좋은 거니까 반대하는 거, 뭐 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많잖아요. 뭐만 나오면 반대한다 이야기하고... 이거는 괜찮을 거 같은데 생각드는 거 있었는데. 정책만 나오면 반대한다는 느낌?

난다 : 이걸 오해를 풀어야 할까 뭘까?

코에바닷물 : 저희 학교 교원평가제가 대박이에요. 하는데요 와 선생 하나 죽이자 해서...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선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보자고 밀어보자 했는데 교원평가제 한다 그래서 와 했죠. 들어와서 수업 끝날 즈음에 출석 불러 보더라구요. 그러고서 몇 명 이름 불러요. 나오래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구요. 쉬는시간 보니까 교원평가 설문지에요. 그래서 애들이 따졌어요. 공부 잘 하는 애들이나 자기랑 친한 애들만... 그래서 저희는 뭐냐고 이렇게 하면 무슨 평가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희들 차별하는 거 같니?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내일까지 갖고 올만한 애들 주는 거고... 이러면서.

김남궁 : 인터넷으로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익명이라는데, 익명 보장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애들 말하는 데 선생님 무시하는 거 기분 나빠요, 수업 지루해서 들으면 토할 거 같다고 의견 다 적었는데 선생님들 그거 보면서 수업 다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수업하니? 야 내가 니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만족하니? 이라고 그러고 니네 어떻게 해라 막... 너희한테 내 생각에 도움 될 거라 생각하고 한 건데 니네가 싫어할 줄 몰랐다고 눈물 맺혀서 그러고. 한자 선생님이 짜는데, 이과생들한테 문과 배워야 돈 쪽으로 생각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너네는 자라서 세금 안 내는 거만 생각하지? 그러고... 버스 추가하고 그런 거 있으면 의사되면 돈 누가 많이 들었겠네 하면서 한다고... 도둑 소굴이니 뭐니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난다 : 빠염을 주제로 얘기를 좀 더 해봐요.

공현 :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빠염하고 싶다. 운동의 역사와 사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방법들을 택해온 것. 그 이상으로 현실적인 방법은 그럼 뭔가? 왜 경험과 역사를 무시할까..

날토 : 일제고사였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과연 누가 들을까, 이걸 대체 누가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할까, 아니면 그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 일제고사를 치면 체험학습을 어디로 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보고서 아 되게 이거 만들어서 지들끼리 돌려보지 대체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느끼고

공현 : 일제고사 투쟁 자체도 정말 빠염하고 싶은 건데 넘어가면 안 될까요(웃음) 교육운동의 찢음과도 빠염하고 싶죠

난다 : 아무리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캠페인 나가고 서명도 많이 받고 얘기하고 피켓 들고 많이 했는데 모르는 거야 진짜. 우리한테 욕하고.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지는 거라... 내가 막 일제고사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깐 힘이 빠져서... 당장 바뀌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 했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거칠게 말하면 기대를 안 하고, 캠페인하는 방식이 무슨 느낌이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잘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선택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예를 들면 점프해가지고 바로 정책이 반영되게 하고 나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내 스스로가 그거는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느낌을 받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뭔가 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가 아닌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미지스 : 저도 인권이나 활동이나 운동 이런 데서 저는 소금인형 따라서 재미삼아 처음 들어온 거였어요. 아 수나로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일반인 같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의 생각에서는 아니 대체 애들이 청소년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구요. 가끔. 근데 하다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비현실적인 거를 하는 거 같고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 하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요새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어요.

코에바닷물 : 이상적인 것도 괜찮아요. 저희는 지나치게 현실적이라서 청소년이 아닌 거 같아요; 너무나 현실을 고려하게 되면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어요 저희가. 점점 청소년이 아니고 어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같아요.

공현 : 실현가능성으로 볼 때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믿으니까 이 길로 가는 거죠 모두가.

코에바닷물 : 활동가내 권위적인 행동... 빼엌.

공현 : 청소년단체 안에서의 양상도 있고... 기존의 단체 안에서는 기존 어른-청소년 사이의 문제나 뭐 대하는 태도의 문제 등 말 많다.

난다 : 아무튼, 이런 것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거나 대응을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코에바닷물 : 혼자 삭히기?

미지스 : 저는 말싸움을 해요. 탈학교 청소년에 특히 편견 가지고 있을 때... 대놓고 갑니다.

코에바닷물 : 공고 다니는 애들 양아치들이다 인생 개막장들이 벌써 망했구나... 이랬는데 딱 고등학교 올라와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 공고 가는 애들 엄청 많은 거예요. 착한 애들인데. 단지 공부에 관심 없을 뿐인데... 이런 편견도.

김남궁 : 실업계, 인문계의 편견?

미지스 : 공부를 못한다기보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 공부는 싫어하는데 영어 회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회화는 잘하는데... 그런 거는 왜 지원이 없을까.

코에바닷물 : 아일랜드로 가야 해요 아일랜드로 -- 전환학년제... 근데 아일랜드도 저희만큼 대학입시 치열하긴 한데;

미지스 : 그런 나라에 학원 많이 만드는 것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서 만들대요.

코에바닷물 :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진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미지스 : 단기간에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

공현 : 대학입시랑 학원에 대한 빼엌?;

난다 : 우리 주제는 아닌데... 이거 궁금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도 계속 하는 게 있잖아요?

신라면 : 활동이요? 솔직히 저는 말하기도 그런게 딱히 어디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냥 세안세다 따라온...

옹여사 : 김남궁 따라서;

신라면 : 저는 그냥 이번이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온 건데 전부 다 프로그램 보면 너무들 다 알고 계산 얘기들만 하는데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ππ

김남궁 : 청소년인권으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봉사 같은 거는, 미혼모 센터를 가서 얘기 돌보는 거나 그런 거 활동

난다 : 그런 거도 얘기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 거긴 한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인권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결합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준비할 때는 방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공현 :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의 좀 결이 다른 문제... 사회활동 쪽에 중점을 두고 짜긴 했다. 하지만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 포괄 가능하긴 하다.

날토 : 다들 개개인적으로 좀 짜증나는 것들 없어요?

김남궁 : 내가 공부를 관심이 없어서 공부 안 하고 나는 이래서 차라리 지금 바로 일 배워서 돈 벌어서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할게, 엄마한테 그러면, 무슨 학생이 그런 생각하냐면서, 공부가 우선적으로 돼야지... 활동하거나 그러면 니가 뭘 활동하냐면서 가서 뭐하는데? 그런....  
학생다워야 하는 거에 대한 가요?

코에바닷물 : 학생이니까.. 하는 거.

날토 : 저는 성소수자 이쪽 관심 있으니까, 호모포비아들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뭐 그게 아니라, 성소수자 그거랑 관련이 없더라도... 약간 그런 거 확실한 거 같아요. “나는 그거 이해할 순 있는데...”라면서 되게 자기는 자기자신이 진보적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짜증난는데... 부모들 그러잖아요.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공현 : 얘기하다보니까 부모랑 작별하고 싶은 마음이...

(설렁설렁 쉬었다가...)

공현 : 집에서 통금시간 같은 거 있어요?

김남궁 : 딱 시간이 있진 않은데 눈치껏

미지스 : 집에서 과보호 받는데... 통금시간 없애려고 한달 동안 집을 안 들어갔어요. 8시나 9시...

신라면 : 그래서 통금 없어졌어요?

미지스 : 예. 가족들이랑 원래 사이 안 좋았는데... 작년 10월이었는데 서울에서 친구집에서 자고 다른 남자 친구 집에서 살고 그랬어요. 살다가 한달 있다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제발 좀 내려오라고 해서 나 너네랑 못 살겠다 그래서 지금 혼자 자취하고.

세안세다 : 생활비 주시고?

미지스 : 지원해주시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대학을 가라고 공부를 해라 그렇게.

김남궁 : 우선 대학교 간 다음에 생각해라, 이거.

미지스 : 대학 가면 너 원하는 대로

공현 : 대학만 가라, 이러다가 대학 가면 온갖 것들 -\_-; 결혼이나 취업이나.....

날토 : 활동하면서 내 안의 생각이 켠다고 생각할 때.

난다 : 나 완전 보수적인 거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

날토 : 담배를 안 핀다고 쳐봐요. 다른 애들 담배 피는 거 보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켜기는 거야. 그런 게 있는 거 같은 느낌?

김남궁 : 이런 생각보다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 아 남들한테 피해주는데 심란해 그정도?

공현 : 꼭 담배 얘기가 아니더라도..

난다 :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껌이라거나 이런 데서 하는데, 드러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날토 : 섹스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데 섹스라는 말을 할 때 어형. 이려고

난다 :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닐까? 그런 거?

세안세다 : 저도 얘기하는데 성에대한 취향 있잖아요. 바이섹슈얼 이런 거 이런 거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나는 바이섹슈얼이야 하면서 세 명이서 다 같이 사랑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데... 성에 대해 너무 딱 막혔나 고정관념스러운 생각만 가지고 있나... 그런 거.

난다 : 그런 생각하게 돼죠. 빠옴하고 싶은데 어떻게 빠옴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현 : 저는 좀... 막 가르쳤는데 모를 때; 설명 하나하나 다했는데 그 설명 안 읽은 것처럼 해올 때. 애는 바본가? 하는... 다들 소질이 다르고 일하는 경험도 다른 건데 내 기준으로.

난다 : 내가 끈대인가? 하는.

김남궁 : 중학생들 담배 피고 그러는 거 보고 어린애가 저러면은... 이런 거?

난다 :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날토 : 켜는 내 모습을 볼 때?

공현 : 활동에 켜는 건 좀 다른 케이스로... 무슨 사건 보고 그 사건에 대해 공감하거나 화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 또 성명 써야겠네 항의방문 가야겠네..... 그렇게 일로 생각할 때. 좀 그런 걸 떠나 순수하던 시절이 되고 싶어.

## 다섯 번째 이야기 <설렘과 망설임>

나는 18살.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딱 어떤 인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어느 한 주제에 대하여 굉장히 깊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 '현재 어디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행사에 간혹 참가하는 것, 그리고 교내 인권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 나도 어느 활동에 정말로 푹덕하고 뛰어들고 싶다!' 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좀 더 알고 싶었고 생생하게 느끼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늘 나에게서는 망설이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말했듯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대학을 간다, 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 일단 '나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들어갔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라고 늘 생각했다. 주변의 친구처럼 학교를 많이 빠져 가면서 활동을 열심히 할 만큼 나는 용기가 없었으며, 매일 매일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갈 그만큼의 기운도 없었다. 또한 일단 학생이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스스로가 선택했다면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공부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부모님의 말도 나를 망설이게 했다.

이번에 '챗' 준비 회의에 참가하는 것도 많이 망설였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설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내 생활 패턴을 잃어버리는 것, 혹시 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폐만 끼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더욱 컸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졸졸 따라 처음 챗 준비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뭔가 열심히 활동해 온 그들에 비하여 경험이 많이 부족한 나였기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기가 죽는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래서 거의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계속 몇 번을 참가하고, 2박 3일의 일정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보며 지금은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어쩌면 이번 활동가 대회가 앞으로의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나처럼 혼자 끙끙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과의 갈등을 심하게 겪거나 하는 등 나보다 더 심각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설렘과 망설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자

\* 설렘과망설임은 속기록이 없습니다.

## 6. [Chat VI] 대화창흔들기

### ●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활동이 부딪히고 있는 장벽들, 청소년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사회적 관점이나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장벽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 청소년활동에 대해 “학생이 공부나 하지!”,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비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래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이 이런 생각들에 도전할 수 있는 자기 논리와 힘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쉬워졌습니다.
- 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공공 생각해보면 왠지 덮에 걸려드는 듯한 기분을 갖게 만드는 교묘한 논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우리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논리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요.
-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논리를 찾아본 다음, 좀 더 간지나는 청소년활동을 만들기 위해 무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토론해봅니다.

### ● 진행 방식

[청소년활동,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대작전]

: 네 명의 패널을 모시고 참여 청소년 논객들 사이의 대토론을 벌여봅니다

□ 모시는 이들

- 1) 학생부장 20년차 ‘한많은’ 교사
- 2)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정겨운’ 학부모
- 3) 자유청소년연합 ‘나중립’ 학생
- 4)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최현실’ 학생

: 청소년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참여 청소년 논객들의 제안을 들어봅니다.

#### 1) 학생부장 20년차 ‘한많은’ 교사

방학인데도 학생들 많이 모여 있네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 여하간 오늘 이쪽 캠프 관계자 분께서 저한테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부장 경력만 20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아무리 아이들이 자기네들도 알 것 다 안다고 이야기해도, 지들이 살아온 세월이 제 학생부장 경력에도 못 미친다는 거지요. 그만큼 아이들 가르쳐본 경험,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경험이 많이 있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쁜 길로 빠진다는 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보면 말이지요, 제 속이 까맣게 탐니다. 점점 더 서로를 위할 줄 모르고, 약한 애들 괴롭히고, 선생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고. 잘못된 것 지



적하고,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건들거리는 태도로 일관하고...아주 이기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이 다 뭐다, 들은 것만 많지 솔직히 옛날 애들보다 지금 애들이 훨씬 더 미숙합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처럼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친구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애들도 물론 있지요. 그런 애들 만나는 보람이 있으니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선생 일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치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만 없으면, 지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교실이 난리가 납니다. 서로 간에 책임도 없고, 규칙을 지키는 일도 없어요. 이런 시점에 체벌 금지다 뭐다 교육청에서 교사들 기죽이기에만 들어가고 있으니, 이거 완전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는 법도, 규칙도, 원칙도 없이 난장판이 될 겁니다.

## 2)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정겨운’ 학부모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고요,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요.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 사회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이들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는 저 혼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도 않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은 구분할 줄 알아야겠지만, 좋은 어른들이 제공하는 보호는 기꺼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학생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에도 꼭 지도교사가 붙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독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학교규정 하나 바꾸려고 해도 저희 같은 학부모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교 밖 모임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지도자나 보호자로 역할을 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뭘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재정을 마련해서 조건을 갖추어 주면,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지요. 솔직히 청소년들도 독립, 독립 외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지원이 제공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청소년활동가대회도 아름다운재단 같은 어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성사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요?

그러니, 청소년은 좋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하고, 좋은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아이들의 뜻을 잘 대변해주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 3) 자유청소년연합 ‘나중립’ 학생

나는 2008년 5월,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를 통해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사실 멧모르고 시작했고, 친구들이 재밌는 게 있다 길래 친구 따라 촛불집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는 지금은 좀 힘들어졌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야간자율학습’을 그렇게 심하게 시키고 뱅뱅이 돌리는 뻘센 학교는 아니었다. 그래서 하교 이후 쉽게 촛불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지금은 고3이라 잠시 쉬고 있지만) 청소년단체도 촛불과 연관이 깊다. 촛불집회를 계기로 이런 모임이 꾸려졌고, 지금도 그 당시 촛불에서 만난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청소년 활동을 만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활동에서도 참 배운 것이 많다고 느낀다. 교과서에서 글로만 배우던 민주주의를 좀 더 실감하게 되었고,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진 게 가장 큰 변화다.

하지만 잠깐 동안의 시간이나마 활동을 했었던 내가 본 청소년활동판(?)은 사실 조금 위험해 보였다. 인권문제나 학생인권을 주요 주장으로 삼는 청소년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어른들로 이루어진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돈도 지원 받는 것 같았다. 조중동 같은 일부 보수언론에서 ‘어른단체’들이 청소년단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라는 말들이 과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거짓은 아닌 것이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더 배워야 하고, 알아갈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중립적인 시선에서 고루고루 여러 가지의 입장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든, 그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그룹의 특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 스스로도 아직 뚜렷한 주관 없이 여기저기 휩쓸리기 쉬운 거라고 생각한다.(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쪽 시선에만 머물러 있거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청소년 운동은 이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이 실제로 미성숙하던, 성숙하던, 실제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최대한 그러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단체만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이념 또는 정치성이 있는 어른들 단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청소년 운동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의미에서 기본이다.

지금보다 더 ‘성숙한’ 청소년 활동, 진짜 청소년들의 운동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 발전해나가야 한다.

#### 4)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 의장 ‘최현실’ 학생

청소년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고작 반년이 흘렀다. 그리고 얼마 전, 나는 그 활동 때문에 약 2달동안 집에서 쫓겨나 있었다.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우리 부모님이 도저히 말을 걸 수가 없는 보수적인 분들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허구한 날 집에 안 들어와서도 아닌 내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어왔던 것이 마침내 폭발했던 것이다. 나는 공부가 하기 싫었고, 부모님은 내가 대학에 가기를 원했다. 도대체 대학에 왜 가야하는지 모르겠던 나는 집을 나와서도 혼자 잘 살 수 있을거라고 믿었다. 순진하게도 그랬더랬다.

굉장히 찌는 말이고 내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지만, 집 밖에서 살았던 두 달 동안 현실이라는 걸 아주 조금이나마 본 것 같은 느낌이다. 내가 집을 나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단지 거기까지다. 삶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들. 차비 720원이 없어 회의에 못 간다고 전화했을 때의 비참함. 매일 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여기저기 갈 때마다 차비를 빌려가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생활이 되었을 때의 느낌은 정말 그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아주 잠깐 느낀 나조차도 이런데.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필수이다. 그것을 위해 대학을 가야겠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이미 학교를 자퇴한 후 몇 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내가 그 경쟁 속으로 다시 뛰어

든다고 해도 좋은 대학에 가기에는 이미 틀렸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부모님만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누구에게 소리쳐야 될까.

반년동안 청소년활동을 해왔고 그 기간 동안 나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스펙에서 멀어져왔다. 내 친구들이 피땀나게 공부할 때 내가 해왔던 활동들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었다. 그 책임을 조금쯤 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활동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희생 위에 쌓여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활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나는 좋고 옳은 일을 하고 있어”라는 자위를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현실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활동 경력이 스펙으로 인정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활동을 스펙삼아 대학에 간 청소년 활동가들이 성인이 되어서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돈을 많이 번다면 그 사람들이 또한 청소년 활동에 또다른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도 하지 않을까. 청소년 활동을 한다고 하면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다. “니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높은 사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 서울대생이 말하는 거랑 대학도 못간 사람이 말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은 공부해라.”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

위에서 말했듯 활동이 개개인들의 희생이라면 그런 활동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를 위해서도, 내 주변의 활동가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도.

## 대화창흔들기 속기록

민영 :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활동이 부딪치고 있는 장벽들, 제약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런 걸 넘어서는 논리들을 찾아보고 좀 더 간지나는 청소년활동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지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위해 어렵게 섭외한 분들을 불러보겠습니다. 학생부장, 20년차의 한많은 선생님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에 힘쓰는 단체로 알려져 있는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의 정겨운 학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청소년연합의 나중립 학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최현실 학생입니다.

진행방식은 네 명의 패널들을 모시고 참여한 청소년 논객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은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지치게 되므로 알아서 적당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여명 토론자들이 모여 있으니 모두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곤하더라도 이자리에서 끝까지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부장 한많은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한많은 :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요. 뒤에 앉아 있는 학생들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죠. 제가 아까부터 어제부터 하룻동안 여러분들을 봐왔어요. 근데 너무... 청소년활동가대회란 이름으로 모인 친구들이면 청소년들을 대표한다고 모인 친구들인데 누워있고 진행할 때 산만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고 어제 돌아갈까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한 마디는 여러분을 위해 하고 돌아가야... 교직에서 20년이나 있었고. 좀 집중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생부장 경력만 20년입니다. 저기 뒤에 학생. 문쯤 달아주세요. 제가 20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나이가, 다 제 자식 뺄인데요, 여러분들 나이가 제 경력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학생부장하면서 수많은 학애들을 만나왔어요. 여러분처럼 적극적이면서 여러 활동하는 학생도 봤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학교 안나오는 학생들도 만나봤고... 가끔은 쓴소리도 하고 가끔은 부모 마음으로 매를 드는 순간도 가끔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 제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나쁜 길로 빠질까봐. 그런 거죠. 제가 20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예전 친구들보다, 요즘, 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괴롭히고 선생님 말 전혀 안 듣고 이런 친구들 많죠? 인터넷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옛날 애들보다 인권 이런 거 아는 거 같고 사회에 대해 아는 거 많아 보이지만, 20년 전 친구들보다 지금 친구들이 훨씬 더 미숙합니다. 근데 참 실망인 게 여러분도 크게 다른 거 같지 않ㅇ는 게, 오기 전에 숙소 한 번 둘러봤는데, 이불 그대로 다 퍼져 있고 라면 먹은 거 다 그대로 설거지통에 있고 여러분들 그거 알죠? 인권 얘기하는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미성숙한 만큼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책임 있는 행동입니까. 미성숙한 친구들이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어른들이 잔소리를 해서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래야만 청소년인권 활동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자기 미숙함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제가 매를 들 일 없도록, 여러분이 잘 하면 선생님들 매를 들 일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영 : 열렬한 발언 감사드립니다. 정겨운 학부모님 말씀 있겠습니다.

정겨운 : 한 선생님 참 화가 많이 나신 거 같은데. 미성숙해보이는 거 많죠 선생님? 하지만 그걸 처벌 중심으로 매를 든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환자로 봐야 하고, 상처입은 존재로 보고,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매를 든다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된 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아이를 가진 엄마예요. 여러분 또래의 아이들 키우고 있구요. 제가 사실 바깥일이 바빠서 돌보질 못했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방향을 하고 힘들게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가 왜 이러나, 해도 안 되고... 결국 아이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아이가 제 사랑이 필요할 때 제가 케어를 제공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바깥일을 접고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상담 받으러 같이 다니고, 불편함 없도록 학교운영위원회 활동도 시작했구요. 뜻이 맞는 부모님들 모아서 청소년보호연맹이라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 잃은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가정 교육이 엉망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면 선생님이 매를 들 필요도 없고. 청소년들도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다 존중해줘야 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격을 존중하더라도, 케어와 지원이 필요하다. 맘껏 뛰어놀 수 있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른들의 역할이거든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밤낮 없이, 부모가 케어할 수 없는 아이들까지 위해서, 청소년보호연맹까지 만들어서 애를 쓰고 있단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나서면 싫어하는 청소년들 많지만, 청소년들 다들 지원도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란 생각이 들구요. 다정하게 아이들이 맘껏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늘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담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나서야 하거든요. 성심성의껏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 : 걱정과 우려의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나중립 학생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나중립 : 저도 활동가대회 한다고 해서... 저도 2008년 촛불집회 참여하면서 접하게 됐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고3이라서.. 제가 활동을 좀 쉬고 있어서 아쉽다고 생각하다가 섭외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된다가나, 입시를 위해 대학 준비만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른들의 시각이고 학생들을 모르고 하는 소린가 하고 옛날부터 생각해왔구요. 지금 어

쩔 수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잖나 2008년 촛불집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활동 시작하지 못했을 거구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활동을 만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활동에서도 배운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촛불집회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민주주의란 걸 실감하게 됐고 참 중요하단 걸 느끼게 됐거든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잠깐 활동하면서 여러 단체들을 만났는데 단체들이라보니깐, 같은 청소년이긴 한데 좀 위험해보인다고 할까요. 학생인권이나 인권 문제를 주요 주장으로 삼고 있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다른 청소년들 순수하게 활동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광우병 위험 있는 소가 수입돼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 막고 싶어서 처음에 촛불집회 나가TEjs 거였고 그러다가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넣는 교육이나 같이 문제의식 느껴서 하게 됐는데 그러 srj까진 참 좋은데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였어요. 뭐 뭐든지 다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단체들이 많으는 거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조중동이라는 신문 있잖아요, 저도 그 신문들 싫어하긴 하지만, 그런 신문들에서,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소년단체를 지원한다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 신문들이 과장을 섞어서 하는 거 같긴 하지만 근데 그게 거짓은 아닌 거 같아요.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좀 더 배워나가야 하고 대학생이 돼서 앞으로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걸 경험하기 전에 어느 한쪽 시각에만 머물러서 그런 거를 접해서 그런 거만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운동이 있는 거 같아서 불안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귀가 얇은 편이라 팔랑팔랑 거리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졌든 안 가졌든, 제가 뚜렷한 주관 없이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운동은 중립을 지켜야 하고 어느 한쪽 시각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운동이 이 사회의 더 다양한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성숙하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든 성숙하든 간에... 주변 친구들 보면 제가 봐도 미성숙해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른스러운 친구들도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딱 미성숙하다고 할 순 없는데 우리 사회 시선이 그렇잖아요. 미성숙하고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어른들이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그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미성숙하다고 공격하는 집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단체의 순수성이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한 정치성이나 이념성보다.. 단체들이 개입하면 그런 게 강해지는 거 같은데, 그런 데랑 거리를 두는 건 중요하고 순수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성숙한 청소년운동을 위해, 더 많은 청소년들을 대변하고 계속 이 사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영 : 최현실 학생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실 :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최현실이라고 합니다. 청소년활동C가대회라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초대받아서 왔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얼마전까진 여러분들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옛날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아직도 이 친구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한 두세달 전에 저 집에서 쫓겨났었습니다. 활동하는 거때문에 부모님과 싸웠고 그러다 쫓겨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이 있었어요. 밖에서 혼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두 달 동안 현실을 봐버린 거 같아요. 순진하게 세상 물질 모르고 활동하고 있던 걸 알았죠. 제가 지금 19살인데, 제 친구들은 피터지게 공부할 거예요. 저는 그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려고만 있었죠. 저 그때 좋았었. 재밌게 했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먹고 살 거예요? 제 친구들은 대학 가고 직장 가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활동한다고 제가 대학 갈 수 있어요? 직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대학도 안 간다고... 철업게... 저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한다고 아무도 밥 안 먹여주잖아요. 활동은 희생이에요. 내 입에 밥이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학을 가야 하구요. 근데 저 18살에 자퇴해서 공부 한 번도 안했어요. 19살에 공부 지금부터 한다고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청소년활동에 바친 제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청소년운동에서 책임져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활동이 스펙으로 인정되어서 대학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 지금 청소년특별회

의 의장직만으로도 가고 싶은 대학 고를 수 있어요. 제 친구들과 많이 다른 처지죠. 활동하는 게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길 원하고 바뀐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해요. 그런데 활동이 한명 한 명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면,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활동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할 거고 그럼 청소년활동도 부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대학 나오고 직장을 가지고 돈 벌게 된 사람들이 또 청소년활동에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리사이클 된다면 청소년활동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은 개인의 희생이어서도 안 되고, 모두를 위해 저를 위해 청소년활동을 위해 그런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겨운 : 제가 정말 최현실 학생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어른을 대표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교육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케어하지 못한 관계로 저런 고민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민영 : 네 분 패널들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청소년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많은 교사님의 발언을 듣고 이후 논객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많은 : 누가 마이크 잡았을 때 웅성거리는 모습 보기 싫습니다. 그런 예절 예의 지키지 않은 채로 자기 인권만 얘기하는 거 이기주의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말씀드려야 할 거 같구요. 여기 분들이 청소년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생각 있고 관심있다고 모였지만... 여러분들 학교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나와있는 나중립 학생 최현실 학생 같은 경우 저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저 친구들 뒤에서 많이 응원합니다. 저희 학생회장 친구도 그랬구요. 제가 20년 하면서 한이 많이 맺혔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던 거, 모범적인 학생들 선도적인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선생 일을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청소년활동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 배움의 상태에 있다는 것. 예의바르게 예절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활동해서 여러분들이 어른들로부터 버릇없는 것들 이런 얘기 듣지 않고 설득력 있게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누워있고 이런 모습 보기 좋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 : 미성숙론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발언하실 논객들 앞에 나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해주시기로 한 엠건 씨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엠건 : 자면서 발언하기로 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저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튼, 학교에 돌아가면 응원하고 있다고... 저는 학교에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다 저러잖아요? 우리 학주는 저거보다 심했던 거 같고... 듣는 얘기들이 낯설지 않은데. 학교 있으면서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생각할 때는 손을 쓸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분께서 하는 얘기는, 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그런데, 논리가 안 통하잖아요. 그 무개념 상태를 어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저런 애들은 좀 인권에 대한 거 하면서 사람 존중 많이 얘기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감수성이 아예 부족한 거잖아요. 교사들도 좀... 인권교육 같은 거 받으면서 감수성을 늘려야 한다. 학생들이 싸운다고 통할 게 아니라 그런 노력과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얘길 했는데 감수성이 없으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네요.

한많은 : 일단 저 친구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 자리 올 때 저는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온 줄 알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니 얘기가 전혀... 교사들을 무슨. 무개념 이런 단어나 쓰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감수성이 없고? 무개념? 그만큼 살아보고 얘길 해야지... 가슴에 묻은 친구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도 못하고 얘기하는 게.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된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지스 : 제가 학교를 자퇴한 게 미술을 3개월 했는데, 강제야자를 하라고 해서 담임이랑 싸우다가 자퇴를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저 교사 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니네가 어려서 모른다, 공부를 해야지 왜 니가 미술을 하나... 예술고를 가든지... 이러면서 저 자퇴서 쓰고 나올 때까지 저랑 눈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셨어요. 감수성이 없는 거 같아요. 정말 썩.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이 많은 거 같은데, 근데 학생이랑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거 같아요. 20년을 교사를 하셨는데, 자기가 교사를 한 그 주관만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랑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서, 평범한 교사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참 많이 답답해요.

청와대소년 : 제가 받은 느낌을 그대로 말해도 될까요? 너무 연륜으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청소년들도 17년 19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학생으로 생활하고...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살아온 한을 왜 그렇게 무시하시나.

비사소 : 제가 열여덟살 짜리 아들을 둔 변호사인데요. 지금 하는 말... 애들 야자로 잡아놓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 해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각서 써놓고 공부 시키고 10년후에 잘 안 되어 있으면 얼마를 배상하겠다 각서 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면 책임을 지세요. 함부로 내뱉을 말이 아니에요.

한많은 : 변호사님 많이 흥분하신 거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적이 없어서 교사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같아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변호사 님, 각서 쓰고 그런 관계 아닙니다. 찾아오는 제자들 보면 다 저랑 부대끼고 욱도 하고 가끔은 매 들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선생님 찾아뵐 수 없다, 라고 눈물 흘리며 친구들 찾아오는데.. 가슴으로 교육하는 사람인데 각서라니요

비사소 :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느낀 게, 책임질 수 없으면서 강요하는 사람이 두 부류 있어요. 사기꾼하고 선생.

한많은 : 이래서 학교 교사들 사기가 다 빠지고 있는 겁니다.

김인식 : 선생님 저 선생님 학교 학생회장인데요. 선생님이 경력만 20년 하셨고 저희 학생회도 맡아서 담당 하셨는데. 저희 학생회 임원들보다 낫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20년 경력이랑, 선생님 연륜이 학생들에 비해 낫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하도 이거 갖고 가도 빠꾸 당하고 해도 제가 개인적 감정으로 그러는 건 아니구요... 그냥 왜 예를 들어서 70먹은 노인 분이 계세요. 친일활동에 아주 열심히 하셨고 반성하지 않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18살 학생회장이 있어요. 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그 학생은 친일파 문제점이 뭔지 알고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이 국가가 정말 어떻게 해야 자주성을 획득하고 제대로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학습하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70대 노인과 학생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한많은 : 인식아 여겼는 학생들 선동하지 마라. 저 친구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저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본분을 잊으면 됩니까.

김인식 : 죄송한데 지금 문제에서 벗어나셨는데요.

한많은 : 저의 경력과. 보아온 학생들... 오늘 본 학생들.. 이런 데서 성숙도를 판단하는 거죠.

평열 : 선생님은 성숙하세요? 성숙도의 기준을 따지시는 거잖아요? 방 청소 안 하고 나갔다던지 말 싸가지 없게 한다...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데, 선생님 기준에서 어른들은 성숙해요?

한많은 :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여러분하고 2박3일 숙박해보십시오. 다 깨끗이 청소하고 여자들은 밥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즐거운 미래 : 여성 모독적 발언입니다.

한많은 : 그렇게 역할분담 해내고 그런 모습들이 성숙한 겁니다.

평열 : 우릴 별로 존중하지 않으시잖아요?

한많은 :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존중하는 겁니다.

레쓰 : 인식 학생 반말하는 데서부터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한많은 : 그건 인식 씨와 학교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사소 : 제가 21년차 전교조 선생인데요. 짬밥 좀 더 먹은 선생으로서 존중 좀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말꼬투리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1년 짬밥 더 먹었거든요. 10년 있다 와서 부대끼다는 애들 있죠? 제가 키워본 애들 중에는, 지금 공부 계속 하던 애들○는 21년 해보니까 30살 먹고 아직 토익 토플 공부하고 취업 준비합니다. 좀 발칙한 애들 애들 살 조직해서 동아리 만들고 영화 찍고 그런 애들 다 봉준호 되고...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몇 년 전에는 지 혼자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하다가 대학 가가지고 자수성가 해서 강남에 살고 그러합니다. 내가 21년째 선생을 했더니까.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한많은 : 소선생님 아까 변호사님처럼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진정하시죠. 대한민국의 봉준호 같은 사람도 손에 꼽힙니다. 어느 변호사님 책임을 물으셨는데... 가서 알 수 없는 길보다 그래도 안정적인 길을 보여주는 게 그래도 교사들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합니다.

비사소 : 봉준호 말고도 다 지 밥 벌어 먹고 살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나한테 면목 없어서 찾아오지 못합니다.

한많은 :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그래도 꿈이 있는 거죠. 밥 벌어 먹는 정도 갖고 안 돼요. 저 찾아오는 제자들 보면 다 열심히 산 친구들 많은데. 설렁설렁한 친구들 못 찾아옵니다

비사소 : 선생으로서 애들에게 뭘 찾아줘야 합니까. 행복 아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행복이라 생각해요. 제가 키운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덕천 : 수고 많으세요.

한많은 : 그런 말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덕천 :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모습 수고 많으신데요. 올바르게 큰 학생들이 대부분 공무원 판사 검사가 됩니다. 근데 떡검이라고 아세요? 떡검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뭐합니까?



레쓰 : 다양성을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켜봐주면 좋겠다, 내버려달라는 거죠. 자기 틀에만 자신이 생각하는 이게 정답이라고 틀에 맞춰서 틀에 부어서 꺼내려는 생각 말고...

민영 : 다음으로 정겨운 학부모님. 청소년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겨운 : 정말 이 공간이 불신이 지배하고 있다... 이게 청소년들을 옥하기 전에 어른들부터 반성을 해야 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교사에게 학교 문제 교사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 더 신경써야 하는 문제가. 청소년들 사회 폭력 문제. 생명 경시 현상. 스스로 목숨 끊는 현상 이런 걸 더 중요한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누워있고 계속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아이들 다 ADHD, 장애 가진 아이들로 봐야 할 거 같구요. 어려서부터 어른들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아서 성장할 기회를 놓쳤거든요. 무턱대고 매로 지도한다거나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런 말로 안 되거든요. 더 따뜻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구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청소년들의 모든 활동에 좋은 어른들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년보호연맹 오시aus 좋은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 동아리 만드는 것도 그렇고 설득력 있게 대변해줄 어른들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나중립 학생이 너무 어른들과 무관하게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얘기하는데... 좋은 어른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구요.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어른들 많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주시고, 어른들 잘 활용하시고 도움도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끼리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고려해주심녀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인식 : 엄마. 나도 이거 계속 접고 있었는데 나도 주의력 결핍 장애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겨운 : 아이에게 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냉리 엄마랑 병원가자.

김인식 : 궁금한 게 있는데 돌아다니면 장애가 있는 거야?

정겨운 : 반듯하게 앉아 있는 아이도 있는데 안된다는 건 부족한 거 아니겠니?

김인식 : 엄마도 그러잖아. 맨날 TV 나올 때만 좀 다르게 하고

정겨운 : 인식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혜원 : 오빠!

정겨운 : 혜원아 엄마한테 얘기하고 어디 다니랬지?

혜원 : 엄마 근데 나 막 담배 피고 운동하고 그랬잖아. 엄마 맨날 집에 가뉘봤잖아. 효자손으로 때리고.

정겨운 : 그건 엄마 미숙했을 때 슌 방식이야 미안

혜원 :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 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해?

정겨운 : 그게 안전한 거야. 내가 끝까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혜원 : 엄마 그게 다 날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라는데 나 지금 행복해보여?

정겨운 : 뭐 행복하지 않게니?

혜원 : 엄마 나 안 행복해

정겨운 :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었구나. 남의 아이 신경쓰다 우리 아이 또 놓쳐버렸어요.

레쓰 : 혜원이 학교에서 이려고 있는데 뭔지 물어봐도 얘기 안 하구요. 부모님은 잘 해주신대요. 청소년 보호연맹 하고 그런데... 왜 혜원이만 이럴까요?

정겨운 : 그러게요 아이가 다른 데서 받은 상처를 제일 가까운 저한테 푸는 게 아닐까 생각 들기도 하구.

인식 : 엄마도 미성숙하면서 어떻게 우리들한테 미성숙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줘?

은총 :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보호받아야 하나요?

정겨운 : 사실 요즘은 아이들이 갈수록 지체 현상이 일어나서 스무살이 넘어도 예전처럼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거 같아요. 정말

은총 : 그러다가 청소년이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겨운 :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울타리 안에만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가 쏟아질 땐 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산 같은 존재가 되게끔... 남을 찌르는 나쁜 우산도 아니고. 좋은 우산을 써라 이런 거고. 원할 때 적극적으로 쓰라는 얘기인 거죠. 그걸 쓰는 동안 스스로 어른이 되는 훈련을 하지 않을까요?

고등어 : 청소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뭘 해주실 거죠?

정겨운 : 개중에는 성숙한 청소년들도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끼리 했을 때 모임 잘 안 되거나... 좋은 어른이 보호자 역할을 잘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고등어 : 그걸 항상 도와주기보다는 혼자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길러주는 게 아닐까요?

정겨운 : 정말 독립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길러질 때까지...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많아서 걸핍된 아이들이 많아서...

공기 : 자꾸 저한테 걸핍되었다고 그러고 ADHD라고 그러는데!

정겨운 : 지금 감정조절도 안 되잖아요

뚝코 :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ADHD다 보호해야 할 환자다. 그러는데 때리는 것도 기분이 더러운데 환자 취급 당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상처 입은 불쌍한 아이로 보는 게... 학주 선생님이랑 기준은 똑같더라고요. 다만 그걸 치료해야 한다고 한는데, 똑같이 어른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겨운 :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있고, 정상적인 행동이다 하는 게 있잖아

요. 거기에 잘 맞출 수 있게 케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죠. 내 말을 오해했구나 명나해~

즐거움미래 : 인식이 어머니 --; 같은 반 친구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통제할수록 그 학생이 위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계속 입히다가 자유화시키려고 하니깐 애들이 교복 없애는 걸 두려워해요. 집안에 가둬놓으면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어머니를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통제하면 위축되고 위축하면 통제하고.

정겨운 : 저는 우리 아이들 케어한다는 게 가둬둔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경험에 좋은 어른이 해야 한다

즐거움미래 : 어른들이 완벽합니까?

정겨운 :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좋은 어른이 길러줘야죠

즐거움 미래 : 좋은 어른이십니까?

정겨운 :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따이루 : 저는 따이루구요. 설정적인 건 보이죠? 저는 설정적인 걸 넘어서, 제가 처음 프로그램 진행했던 이 유만으로 대표적 스텝이 되어서 모든 잡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느낀 게 있었는데요. 정신병 환자들은 자기가 정신병인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걸 인지하면 정신병 환자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미성숙, 정신병이다 하는 게 조금 거친 표현일지 몰라도 상당히 말은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앞에서 학주 선생님이 말했지만. 그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제 0번 방에서 감자깡 먹은 학생들. 뜯어놓지 않은 간식, 오늘을 위해 힘들게 준비한 간식들 갑자기 말없이 마피아 하다가 야밤에 뜯어먹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방 한 번 볼까요? 이불 어떤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저는 이 뒤에 교사나 학부모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면 현실은 미성숙하지 않은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온몸으로 인증해준 걸 양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플러스 정신병은 혼자 치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환자 본인의 의지이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한 게 정신병이죠. 그들의 도움 자체를 거부할 순 없는 거죠. 착한 부모가 있긴 해야죠. 나쁜 부모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자꾸 경험 드립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경험은 늙은이들이 많습니다. 그걸 부정할 순 없잖아요? 먹은 밥그릇이 몇개고 경험이 몇개인데 우리가 더 많다고 우기진 말자구요. 우리가 토론하려고 한 거지 우기자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보호연맹 이야기가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 진실성을 갖고 있다 느끼는 게 있어서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지지하는 바입니다.

레쓰 : 청소년들이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잖아요. 청소년들을 끌고 가려면 어느 정도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즐거움미래 : 미숙하다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겨운 : 저는 통제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케어를 하자는 거죠. 같이 뛰어놀다보면 거친 양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슈아낼 수 있는 영양과 사랑을 가진 보살핌을 하자는 거죠.

민영 : 정겨운 학부모님께서 청소년들은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있어야 한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분의 발언을 더 듣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공기 씨 발언해주시겠습니까.

공기 : 편하게 누워 있다가 저한테 ADHD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당황했고... 저는 그냥 편하게 누워 있고 있어서 누워 있었던 건데. 앞에 있는 어른들이라는 앞에서 누워 있어도 안 되고 올바른 자세 앉아 있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편하게 누워있고 싶었던 거 같아요.

사실 저 분이 정겨운 씨가... 계속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통제가 또 다른 억압이나 그렇게 계속 통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건 통제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통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이 어린 사람이든 간에...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아니다 하면 그 사람 행동을 억압하는 거고 못하게 하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이 이런 걸 떠나서 부모님 이런 걸 떠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민영 : 이로써 정겨운 학부모님과 대화는 끝이 났구요. 자유청소년연합 나중립 학생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립 : 지원이라거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청소년활동이 어느 정도 독립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받는 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어쨌든 한 가지 그런 것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중립을 좀 지켜가면서 얘기를 해야 다른 청소년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진짜 좀 더 성숙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의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물론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마냥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대방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길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영 : 정리해보면, 나중립 학생은 비정치론에 대해 말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청소년활동과 연관지어 말해주실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뚝코 : 청소년이 하는 운동이 계속 비정치적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들로부터의 독립성을 같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약간 다른 문제 같아요. 청소년도 충분히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게 선부른 선택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별로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자기 입장에서 좋고 싫은 게 있고 그게 충분히 정치적인 게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어른들 입장은 대개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주류이고, 그래서 더욱 강하게 청소년들 입장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면, 청소년들이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건 어른들의 입장을 대변하다보면 우리가 바꾸려고 한 세상이 아니라 어른들과 타협하는, 어른들의 세상에 물들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사소 : 제가 왜 운동하냐면, 제가 참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는데 학교를 가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영상학교 가서 영화 배우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야자를 하래요. 영화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니까 다다음달에 배우래요. 그럼 뭐 영화 배우고 싶는데 학원 갈 시간 없는데 일제고사 중간고사... 부모님은 학원 가래요. 내가 내 꿈 찾아서 가겠다고 하는데 거리 집회 나가서 주장을 말했던 말이에요. 일제고사 싫고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저기 저 사람이 나한테 빨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청소년 자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책임 저줄 거 아니잖아요? 내가 빨리 배우고 싶은 거 못 배우면 속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보는데 그걸 막아선 되느냐 하는데 그런 생각이예요

나중립 : 그런 입장들에 많이 동의를 하구요. 야자 강제로 시키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촛불집회 나가서 이런 활동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저희 반이 야자 빠세지 않았거든요. 켈켈한 편이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너무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한 쪽으로 치우친 입장이 과연 진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등어 : 질문이, 어떤 활동이 정치적인 건가요?

나중립 : 제가 생각하는 활동은 좀 막 정권 비판적이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

정겨운 : 아수나로나 이런 단체들

나중립 : 급진적 요구를 하는 단체들. 정치성 띠면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회 시선이 있는 이상 그걸 그렇게 그냥 넘어버릴 순 없다는 거죠.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바꾸든가 욕 먹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말하든가 해야지. 촛불집회의 경우도 처음엔 다들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건데 단체들 이런 데서 개입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달을 빠졌거든요. 그런 거 봐도 알 수 있듯이 자기만의 이념이나 색깔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타협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짱얼 : 중립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념이나 색깔이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특히나 청소년의 경우는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질문하고 싶은 건, 중립이란게 뭘지부터가... 중립을 요구하는 입장도 그거 자체가 한쪽의 시각인 거잖아요. 난 중립이 맞는 거야? 난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시선도 있는 건데 그것도 결국 치우친 시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구... 이걸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는 걸 규정지어버리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립 학생 글을 보면, 한 쪽의 시선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건 너무 고정적인 시선이고 편파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람들 어떻게 같이 하나 단체들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활동을 할 때 시선이 없이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하는 거고, 활동할 때 보통 많이 하는 게 말을 걸고 설득하는 건데, 내 입장 없이 그냥 말을 하면?

나중립 : 중립도 하나의 입장이란 건 저도 생각지 못한 건데,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이기 때문에. 미성숙하다고 단정짓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미성숙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은 이 사회에서 약자인 건 맞는 거고 어른들이 상대적으로 강자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 경험 부족하고 미성숙한 건 사실이죠. 경험 부족하니까 경험을 더 쌓아나가야 하는 거고. 한 쪽에 휩쓸리면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단 거예요.

정겨운 : 나중립 학생 의견을 보충하면, 평화를 원한다, 는 중립적인데 어느 전쟁을 반대한다는 정치적이죠. 위험한 쇠고기를 반대한다는 건 중립적인데, 이명박 정권이 나쁘다는 정치적 표현이죠.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 가슴아픈 일이에요. 우리 충분히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청소년들을 미성숙하게 본다. 청소년들으니 특정한 사건이나 정책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내다보면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가 쉽다는 거죠. 괜한 의심을 사고 순수성이 훼손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시기에는 오히려 그 활동의 의미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포장할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어른이 같이 있어야 한다면요.

따이루 : 사회자가 중립적이지 못하네요. 제가 처음부터 손 들었는데... 저는 되게 정치적이예요. 저는 보통 빨갱이 소리도 많이 들었고 애들 선동하지 말란 소리도 많이 들었고 흔히 말해서 조종동에서 가장 공격하는 빨갱이 조직인 아수나로 활동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장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큰 회의감이 듭니다. 진심으로. 진짜 요즘 청소년운동 때려쳐야 하나 고민까지 들 정도예요. 이번 청소년활동가대회 준비하면서 가장 작으니 희망을 걸고 참가했지만 활동가대회 보면서 희망을 찾진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활동가대회 끝나면 활동을 때려칠 예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저기 두 아이가 누워 있고 세 아이가 누워 있고. 정치의 가장 기본은 토론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뭘니까 토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토론이 기본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이려고 있는데 뒤에서 누워 있고... 토론하는 기본적 자세와 매너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치적 입장 자신의 생각 이견 모순적이고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청소년들 충분히 자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래에선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상태를 봤을 땐 아직 먼 이야기라는 게 제가 3년 운동을 뒤돌아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진심 어린 고민이구요. 두 번째로는 저는 청소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 생각인가, 본인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나 보면. 오락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간사 분들 간사 선생님들 여기서 솔직히 간사 없는 단체 있나요. 청소년단체지만 사실 간사가 주도합니다. 간사 없으면 예산 하나 없습니다. 단체에 가장 핵심적인 예산이 날아갑니다. 입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사님이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이게 청소년활동가들 현실인 거죠. 그러면서 무슨 자기 입장을 말하고 생각을 말합니까? 스스로 자기 권리를 깎아먹고 있는 거죠. 저는 중립적이라는 건 다양한 생각을 고민하고 가진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을 어른들에게 무서운 어른들 사실상 권력을 쥔 어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 중립이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봅니다. 아까부터 말했지만 여러분 미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미성숙합니다. 저는 진지하게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정치성이 무엇이고 미성숙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소년 :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뭔지 모르겠고, 저희는 정치적인 걸 뭔지 정의해놓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 입장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광우병 예로 들으셨는데 광우병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광우병 나빠야 말해봐야, 수입하고 있는 핵심 그 책임자는 MB정부이고, 나쁘다고 하는 거랑 MB 정부 규탄한다고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고 정치적인 상이라고 했는데 야자 반대한다 체벌 금지한다 이런 게 정치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좌파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맞기 싫은 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치적 문제로 거론되어서 우리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정치성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립 : 계속 맴도는 거 같은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랑 내가 입장을 말하는 게 정치적일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청소년으로서 순수하고 독립적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어 : 정치성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우리 어Esj 걸 할 수 있을까요? 중립을 지키려고 하면...

나중립 : 개인적으로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근데 체벌을 무조건 체벌 금지를 내려버리는 건 바람직한 대안인가 생각인 거죠. 체벌을 없애고 대신 뭐 이런 걸 해라는 얘길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길 한다거나... 이념적 말들 하는 데가 많은 말이에요. 청소년단체들도 벌써부터. 어떻게 벌써부터 그런 얘길 할 수 있는 건가...

비사소 : 두 가지가 지금 문제인 거 같은데 급진성 하나하고 중립 그게 문제죠? 급진성은 청소년 입장에서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급진적이지 말라고 하는 게 과연 설득력 있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중립에 대해서 말했는데 광우병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운동 하는 애들이 거기 가서 껴잇Dmf 이유가 없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수나로 경남지부에서는. 그린마일리지 반대하고 휴대전화규제조례도 반대하고 하는데 그걸 주장을 해요. 그걸 하는데 왜 대림자동차의 해고자들 농성하는 데 가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오느냐 하는 거죠. 정치적 행위잖아요? 좌파적 행위잖아요. 그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저는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를 아예 무시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내 일이 직접적으로 아닌 데 참여하는 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응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우리 말에 귀기울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

이거든요? 그게 그냥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고가 나쁘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도 커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농성장 가서 힘내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촛불집회나 광우병에서도 다르지 않죠.

뚝코 : 정치성과 순수성 이야길 하자면, 이념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념과 정치에 대한 얘길 하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운동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를 더러운 거라고 보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순수하고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잖아요. 청소년들이 정치한다고 하면 어린 것들이 벌써 생각하게 되죠? 근데 청소년들도 이 사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정치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오히려 자기 입으로 순수해서 정치적이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자기 권리를 버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정 당이나 단체나 그런 단체를 우상시하면서 단체 말은 무조건 맞다고 말하는 건 저도 반대를 해요. 정치성을 띤 단체가 청소년들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럼 저희는 분명히 찬성을 하고 그게 정치성으로 비춰지더라도 우리는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세안세다 : 말씀하신 청소년운동의 순수성 독립성 지키는 건 반대 입장도 생각해보자는 거 같아요. 이번에 서울에서 체벌금지 내렸는데 체벌금지하면 대안이 없다, 해서 체력 기를 겸 운동 시켜서 이러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또 하나의 체벌이잖아요.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킨 대안이라고 나온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마치 문제를 해결한 듯하지만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적 문제를 해결 못하면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순수성과 독립성이라면, 아무 우리 의견이나 바꾸려고 하는 게 반영되지 않은 걸 이걸 청소년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과 얘기한다면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채 계속 문제가 지속되는데 이게 순수성과 독립성인가 의문이 들어요.

따이루 : 제가 던졌던 고민에 대한 답변을 전 듣지 못했습니다. 전 참 아쉽네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중립적이다 백지다 얘기하는 건 보호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버티기 위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그런 식으로 자길 보호하는 건 어른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동물적 본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건 근본적 해결이 안 됩니다. 솔직한 토크와 대화 입장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생각할 때입니다. 아수나로 경남에서 응원 메시지 보냈던 거 얼마나 참석하던가요? 청소년들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무조건 하겠다 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단 거죠. 토론 진행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나마 가장 적극적이고 참여한다는 대한민국 청소년 활동가들의 주소인데. 하물며 일반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런 거에 고민을 갖겠습니까? 정치성은 그런 청소년들을 위협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지금 이 정도 얘기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름 : 청소년활동가라고 전국에서 모인 분인데.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동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순수성 중립성 이런 걸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 내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좌파의 전교조 선생님이건 배후 세력이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라면 그렇게 되는 거고, 굉장히 한 번 그런 이야기들을 내 마음 속에서 머리 속에서 한 번 다 걸러내고 내 목소리로 내야 그게 정말 독립성과 순수성을 가진 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온 말이 좌파고 빨갱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조중동이란 신문에서도 편파적 보도를 한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보는 신문도 뻔하잖아요. 한겨레 경향 그런 거 보는데. 신문이나 언론에서조차도 완벽하게 우리 진실을 말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야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좌파도 우파도 그렇고 추모를 하면서 국민의 아버지처럼 얘기하면서 했는데 제 친구는 그거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요. 개는 부안에 사는데 초등학교 때 핵폐기장 설치한다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고... 거길 완전 짓밟았어요. 그런

짓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건 깡그리 무시가 되고 서거하셨단 이유로 잊혀지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좀 더 수동적이지 않은 주체적인 활동을 하려면 단체로 활동하다보면 단체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 마련이고 팔려가기 마련이고 말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 같은데 스스로에 대한 더 주눅거 생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형우 : 타이루가 아까 했던 말에 대해 말할게요. 이게 연극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아까 한 말이 정말 생각이예요?

민영 : 토론에 맞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사람만 얘깁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무슨 주체적 청소년 입장을 가진 그런 청소년 이런 얘기를 하나요 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단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막 실제로 어떤 선생님이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힘든 분도 있을 수 있고 정리가 생각이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만으로 청소년들이 이렇다라고 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청소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사실 이 চে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이긴 하잖아요? 어떤 말하면 구조의 일부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려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이고 이런 말이긴 한데 근야 애들끼리 모였을 때 말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하나의 자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리가 안되네... 하나의 자리로 만들어진 거에서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말을 주저하게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체적이지 않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고등어 : 타이루에 대해서 약간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민영 : 그 사람이 아니라 입장에 대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 모여주신 분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건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막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타이루님이 이기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립 : 타이루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고 : 저는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중립이 제 생각 말고 다른 생각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자고 하셨잖아요?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릴 위험이 있어서 그걸 위험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우리도 신문기사로도 많이 나온 상태였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그 수입산 쇠고기가 더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큰 촛불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정치적 색깔을 띤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립적 상태에서도 운동을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면 중립적 운동을 계속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강력하게 색깔을 띠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엠건 : 처음엔 그냥 들으려고 했는데. 점점 스트레스를 주더라구요;; 나중립 씨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중립이란 말은 없는 거 같아요. 중립이 없어요 정치에는. 정치적 중립이 어찌고 거기 말렸던 거 같은데 저도 정치에 대해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청소년으로 살면 정치랑 관심 가질 일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예전에 교육감 선거 때 정치적 권리에 대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때 나름 내렸던 결론은, 지금 잇는 현실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힘이나 활동이었어요. 정치 얘기할 때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흑인들은 참정권이 없었고 여성들 참정권 없었고... 흑인 여성 그렇게 발전해왔다고. 따져보면 예전엔 노예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을



꾸러가는 게 없었어요. 귀족 영주 이런 사람들이 횡포 부리는 걸 감내해야 했고... 그 핍박은 견딜 수 없어서 싸웠고 쟁취해서 얻은 게 시민의 권리 이렇게 발점해는 거고, 여성들 지금 참정권은 있지만 현실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무녕 남성들이 너네는 우리의 소유물이야, 라는 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는데, 현실에 개입하고 싸웠고 현실을 바꿀 수 있었어요. 청소년들은? 정치에 아예 다가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정치를 선거나 이런 걸로 국한해서 생각할 게 아닌 거 같아요. 신기했던 이야기인데 생활 속에서 내가 동생이랑 이야기해요. 내가 이걸 갖고 싶어. 나한테 필요해서 가져가고 싶은데... 그래서 애가 먼저 가져가겠대. 그래서 논쟁을 해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누가 가져가면, 그것도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주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 모든 걸 하는 거라고.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야 어떻든 상관 없다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박탈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건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청소년을 위한다 이런 건 각각이 개인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의 행복이나 필요라고 가정하고 말하면 강요일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을 원한다는 목적은 허구예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위하는 일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통제하는 수단을 쓰는 건 그냥 본인들 편의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참가자들 원하는 걸 생각하고 하려면 품 들고 고생스러워요. 그거 안 하려고 편하게 이렇게 저렇게 강요하는 게 어른들의 방식이고 가능한 건 청소년들은 힘이 없고.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맘대로 할 수 있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나중립 : 마지막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중립도 하나의 입장일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있구요. 저는 계속 청소년들이 약자이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보이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런 입장 이런 거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걸 포괄하면서 활동해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민영 : 나중립 학생 입장에 관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대한민국 청소년특별회의 최현실 학생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실 : 앞에 너무 길었네요. 나 지금 다들 너무 피곤하고 나도 너무 피곤한데. 빨리 얘기하고 후딱 끝내요. 현실적으로.

제가 청소년 활동이나 활동가들에게 바라는 거는 마치 자기들이 뭔가를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어른들이 무슨 말하면 재네 또 저런 말해. 그러면서 무시하고 넘기기만 하고 아 저건 아냐 난 다 알아 그러면서 넘어가버리고. 자기 입장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청소년이라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 거 같아요.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저는 어른들일아 똑같이 하는 그런 걸 안했으면 좋겠고

자신을 좀 더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 자신? 이렇게 활동에만 매진하다가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하다가 뭐 먹고 살까, 이럴 때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든 스펙을 쌓든 하면 좋겠습니다.

민영 ; 스펙론에 대한 것일 수 있겠는데요. 다음으로...

레스 : 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보면, 나오는 이야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목숨 바쳐... 투쟁을... 이야기 듣다보면 오글거려요. 제 입장에선. 전 솔직히 저 살자고 운동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맞는 거 싫고 야자하는 거 싫어서 운동하는 거예요. 솔직히 손해보는 거 많아요. 차비도 많이 나가구요. 집에서 많이 욱 먹고. 교회 나가면 다 물어봐요. 그거 해서 밥 먹여줘, 뭘 바꿀 거야. 솔직히 답할 게 없어요. 청소년운동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활기나 이런 게 좋으는 거 같아요.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거 말구요. 운동에서 활동하는 학생들 책임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스 들어요. 동의하는 바예요.

달 : 저는 최현실님께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부모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자꾸 책임을 지라는 얘길 많이 했잖아요. 공부만 하라고 하고 책임 저줄 거냐... 근데 남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펙을 쌓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든 회사에 들어가 취직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든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정리가 잘 안 되네;; 스펙을 쌓는 게 그렇게 나쁜 의미만은 아닌 거 같고 청소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됐는데 막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학교를 안 다니는데, 학교 다니면 소속되어 있다고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를 나오면 눈에 보이거나 쌓아온 그런 게 없으면 어느 한 순간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제 관점에서. 내가 이때까지 이런 걸 했었다, 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끔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 같거든요. 스펙이. 그래서 저는 최현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정열 : 되게 알밋거든요? 사실 반이상이 너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마음을 울리는 글이라고 해야 하나? 720원 없어서 회의모간다는 부분? 개개인의 희생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뒷부분에 가선 갑자기 싹 돌변하는 느낌이에요. 대학 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 하는 게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이말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활동을 스펙으로 대학 간 활동가들이 높은 자리올라가거나 돈 벌면 청소년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사실 스펙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활동을 또 하나의 스펙으로 만들자는 건...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학밖에 길이 없긴 하지만 결국엔 대학만이 답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스펙 삼아 대학을 가서 높은 사람이 돼서 도와준다는 게? 극단적 비유일지도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쁜 사람인 거 같거든요?

: 저 분의 말에 덧붙여서 말하면요, 스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펙을 쌓으면 대학에서 이런 활동 어필할 수도 있고 입학사정관제도 잘 보일 수 있는데요. 청소년활동을 스펙에 넣자고 했잖아요.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활동이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펙을 쌓기 위해 활동을 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제 말은 청소년활동이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청와대소년 : 저도... 저는 스펙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청소년활동으로 진심으로 했고 그랬는데 그 활동들이 좋게 평가 받아서 회사에 입사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건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런 게 된다면은 이제 활동이 수단이 되는 거죠. 대학 가기 위한,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면 청소년 활동이 더 이상 발전할 거 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서 청소년활동이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되지 진정성이 있고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한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 문제들 들어보니까 청소년활동 단체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 여기서 해결하기는 힘든 거 같아요. 나중에 첫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이렇게 청소년 활동가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연대체라든지 그런 걸 꾸려서라도 이런 대회를 여는 건 힘들겠지만 회의라도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은총 : 저는 이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대학을 가는 문제는..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얘기할 순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당장은 활동하고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활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활동에 몸을 담고 그쪽 갈 생각이 있는 stkfka도 있지만, 일상에서 활동을 지속시키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대학 가기위한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건 불쾌하고 활동이라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고 하는 건 비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줄 수 없잖아요. 청소년활동가들이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다가 지치면 좀 쉬었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너무 힘들면 떠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지

금부터 이것만 해야 한다 이것은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가리려고 드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좁은 틀 안에 갇추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실 : 저는 은총이 했던 말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이런 내용의 글을 부탁 받아서 이렇게 썼지만... 되게 뭔가 쉽게 말해선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스펙에 대한 얘길 했을 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당하지 못하잖아. 이용하는 거야? 했을 때 아무도 쉽게 얘기할 수 업산고 생각해요. 그건 비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썼지만 사실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아즈 : 지금 여기 보시면 활동 스펙 삼아서 대학 간 청소년 활동가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그래서 어 돈 없는 우리 단체 사무실 내려주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예산이 부족해요 그럼 예산 내가 줄게 그러고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멋있네요... 근데 그게 보면 활동하는 청소년들한테 유하게 설득하려고 할 때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가 들어봤을 말인 거 같거든요? 니네가 이런 생각 가진 건 좋은데 힘이 없지 않냐 힘을 가져라 힘을 가지려면 대학 가고 나중에 높은 자리 오르거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니들이 세상을 바꿔라... 이거하고 맥락이 통하는 거 같은데, 그거 안 그러잖아요. 학생 때 대학생 운동 했다가 정치로 진출한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안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합리화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고등어 : 입학사정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학생이거든요? 여태까지 해 온 활동을 스펙으로 삼아 입학사정관제 지원하려는 사람이예요. 근데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활동을 운동들요 모두 다 스펙으로 봐주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어요. 그게 스펙으로 봐주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면, 무조건적인 시위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가 있는 활동, 지원하려는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와 부합되는 활동이라면 스펙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여기 써있는 말을 들어보면 해왔던 활동들이 아무 의미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깐 가슴이 아프고 이게 아닌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김인경 : 좀 뒷북일 수도 있는데요. 스펙을 쌓으려고 의미가 변질된다는데... 제가 지금 중학교를 안 가고 초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홈스쿨링 시작하려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다녔던 학교에 보육실이라고 돼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봉사활동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전국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대구에 봉사활동 통장이란 게 있어서 그쪽에 다 쌓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 조금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저도 의미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정말 순수하게 애들하고 지내는 게 좋고 ... 계속 하게 되면 순수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청하는 게 잘못돼서 기록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구요.

민경 : 한많은 교사님은 미성숙론, 정겨운 학부모님은 우산론, 나중립 학생은 비정치론, 최현실 학생은 스펙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고. 마지막 프로그램이니만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에 대해 더 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들.'

청와대소년 : 이대로 이렇게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활동가대회 모였던 사람들과 청소년 활동가들끼리 연대체를 구성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보고 그러는 게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거 같아요.

민경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고등어 : 스펙에 대해 약간 할 말이 있어서; 제가 중2 때부터 활동해왔습니다. 오래 한 거 같은데... 겪다 보니까 스펙에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구요. 스펙이라는 게 사실, 대학에서 받아주는 대학도 있고 안 받아주는 대학도 있는데, 그 스펙을 생각하고 했다면 그건 진정한 운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스펙이라는 거 자체를 자

기가 쌓아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대학 입시 낼 증빙 자료로 보는 건 올바르지 모상다, 이런 걸로 본다.

민경 : 어떻게 하면 청소년 활동을 더 알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지를 받을지 더 멋지게 활동할지 전체적으로 토의하겠습니다.

송성한 : 죄송합니다만 앞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민경 :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한 : 대구에서 왔는데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해보구요. 뜨거운 논란들 토론들이 이어져서 보기 좋았습니다. 보면서 정책 수립 관련해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구요. 소통의 기구들이 마련되면 한다는 바람을 가져보구요. 대학 스펙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하신 의견 일리있는 의견이었고, 놀랐습니다. 저런 의견도 있고 하다는 거에 놀랐고... 다들 수고하셔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열 : 다들 마무리 멘트를 해서 마무리 멘트해야 할 거 같은데;; 활동 알릴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 문제는... 저 사실 까먹었어요;;

따이루 :여러분이 전지에 쓰신 내용 참고하시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 해볼까? 라는 전지 있었는데.

거기 써고있는 것 중 하나가. 활동가대회가 있고 청소년운동이란 게 있는데.

활동가대회에서는 고기를 구워먹고 싶다. 캠프파이어 하고 싶다. 담력테스트. 기상미션. 잉여1등에게 상달라... 이 정도가 제안이었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운동에 대한 제안 몇 개 있는데요. 하나는 청소년활동가 메일링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구요. 스펙론에 맞서는 이야기인데 수능거부 대학입시거부 선언하자는 이야기가 있구요. 청소년연애탄압 조사, 대응해보자. 그 밑에 스킨십했다고 강제전학 당한 적 있다는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가 적힌 겁니다 . 참고하세요.

은총 : 일단 알리는 것도 좋은데 활동가들끼리 좀 친해져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활동가들이 되게 많은 부류로 나뉘잖아요. 굉장히 깊숙히서 오랜 시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야자 보충 다 듣고 톡톡이 하는 활동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활동가들 잘 모이지 못하고 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도 잘 되지 않고. 누가누가 활동하는지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저 사람도 몇 년 하고 나도 몇 년 했는데 만나면 쭈뼛쭈뼛 한 거 같아요. 전국적 전체적 소통이 잘 안 되서 힘들지 않을까... 다양한 활동가들을 서로 많이 만나고 내 경험이 이러면 저 사람은 어떤가... 뭐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어 : 단체들이 클럽이나 인터넷 사이트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킹 방법 중에 하나가, YMCA 있으면서 한 일 중에 스스로 잘 했다고 생각한 일이 지역별 클럽을 다 가입해서 활동 있으면 글 올리고 한 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헛 저 분이 청소년 YMCA 클럽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거 아니면 몰르랐어요. 아 저렇게 소통하는 데는 알 수 있는데 여태까지 서로 무슨 활동했나 모르고 있잖아요. 활동 사이트에 1주일 전에라도 올려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해서 알려요.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저는 활동가가 아니거든요; 한다 하면 구경이나 갔었지.. 모르고 왔는데 저 친구 따라서 같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오기 전에도 저도 학풍 안 다니지만 학교 너머라는 단체가 있는 거조차 몰랐고 나보다 어린 친구들

이 많은데; 자기 생각 표현하고 운동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구나. 여기저기 가입해서 활동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다음에도 챗이 내년에도 열릴지 모르겠지만 친구 하나씩 데려와서 같이 배우고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비사소 :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너무 토론하면서 분위기 험악하게 해서 오신 분들 얘기도 못하고 아쉽게 생각해요. 밤 10시인데... 자기 경험 이런 거 공유하고. 몇 번 없는 자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민영 : 좀 더 깊은 공유가 필요하신 분 이 뒤의 자리에서.

미지스 : 소통 말씀하셨잖아요. 소통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데요. 제가 지방에 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느냐다 아수나로 이래서 서로 좀 알아요. 어제도 보니까 막 서로 잘 알고 인사도 막 하고 하는데 저는 아수나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활동가라고 솔직히는 몇 안 되는 거 같아요 전국에... 단체가 있어도. 그런 단체들끼리의 소통도 중요한 거 같은데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서로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이트나 이런 거나. 친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난다 : 저는 나중립 학생의 의견에 그렇게 동의하는 건 아니구요. 아까는 나중립이었고 지금은 난다입니다. 아무튼 같이 뭐 하면 좋을까 얘기하는데, 이런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걸 준비했던 게 이런 게 활동에서 많이 듣게 되는 거고 고민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런 얘기들과 함께 어떻게 앞으로 더 재미나게 간지나게 활동해볼까 하는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타이루가 읽어준 것 중에 메일링리스트 만들자고 한 게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지금 소규모이긴 한데 youthhr 이라고 청소년활동가들 몇 명이 알음알음 쓰는 메일링이 있거든요. 청소년활동가대회 오신 분들이 메일 주소남겨주시거나 롤링페이퍼 하면 거기 메일링에 가입을 해서 같이 소식 같은 거 있으면 보내고 하면 있는 메일링 활용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안세다 :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은 미성숙하단 얘기였고 막 그런 느낌이었고 여기 우리 내에서도 뭔가 이제 우리 스스로도 얘기가 잘 안 나온다 토론이 잘 안 된다 느낌도 받았던 거 같아요. 그런 게 솔직히 청소년 정치적이면 안 돼, 이런 말 조심해야 돼, 이런 것도 솔직히 여기 오덕훈련원은 너무 채식이 많아 고기먹자 고기먹자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고 얘기인데 사회 전반 분위기가 너무 당연한 정치가 정치가 아닌 것처럼... 그런 청소년의 정치적 문제 자유로운 이야기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약간 뭔가 정답만 말해야 할 거 같은 우리의 인식이랄까요.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차라리 말하지 않았어 하는. 자유롭게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저도 제대로 말하지 안하면 민망한데 하는 두려움.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라도 자주자주 얘기를 하고 진지한 얘기가 시간 정해진 데서 하기는 힘들 거 같아요. 최현실님은 말도 별로 못하셔서... 뭔가 긴 시간 동안 모두가 고민할 문제인 거 같고 그런 자리가 많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타이루 : 저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부드러운 활동가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이 미성숙하긴 하지만 원래 미성숙한 거는 부딪치고 깨져야지 나아지고 발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원래 토론도 훈련을 해야 할 수 있어요. 많이 겪으면 돼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전국에서 다양한 청소년화롱가들이 모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자리가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상당히 의미 있다. 기념비 세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빠르면 다음 여름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좀 우리가 2박3일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활동가대회를 이번엔 몇몇 단체들이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참가했던 청소년활동가들과 단체들이, 2회 청소년활동가대회를 이번 거를 계기삼아 좀 더 재밌는 걸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번 참가자들이 의지있는 분들이 기획단으로 구성되며 좋겠다던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나름 : 다들 되게 훈훈한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좀 저 스스로한테 하는 소리가 크고 다 같이 한 번 생각하면 좋겠다 해서 날카로운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하면서 분명 머리는 텅텅 비었으면서 꼬장만 부리는 꼬장쟁이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날카로운 말도 필요하긴 하지만 대안 없는 비판은 구차하고 투정밖에 안 된다고들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면, 공부를 해야죠.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요. 넌 얼마나 공부하고 있냐... 이런 데까지 앉아서 사회 앞날을 걱정을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창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걸로도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너무 거창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생각해보면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니가 얼마나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냐 생각해봐요... 학주가 맘에 안 들면 가서 대들고 이런 건 잘해요. 하지만 정확한 상황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라거나. 인권 조항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우발적 행동으로만 보여지는 게 철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들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활동을 전 열심히 하지 않아요. 대안학교 다니고 그 속에서도 바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챔피언하고 죄송스럽긴 한데. 당장 앞에 있는 캠페인도 운동도 중요하고 사회적 이슈 사대강 중요하긴 한데 이것만 쫓아가다 보면 안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립학생 얘기 했을 때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활동가라는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면 아닌데 하는 정도로 그쳐선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통한 주체적 뭔가가 서이TDmf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내기 위해서는 머리 빈 꼬장쟁이가 안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해인 : 저는 여기 특별한 활동하는 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활동하는 분들 만나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굉장히 충격 받았구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네 좋은 뜻이구요. 그래서 지금 이게 타이틀이 활동가대회여서 활동가 분들이 대부분인 건 맞는데. 저처럼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걸 그만큼 많이 알고 그 사람들도 충격 받고...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 많이 알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쓰 : 저는 이제 어쓰로 돌아왔구요. 연기로 g나 거 맞지만 사실 앞의 사정들 제 사정들 맞았고 저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썼거든요. 진짜로 탁탁 지칠 때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래도 갈 수 있었던 건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 이렇게 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하지 않을까 해요. 많이 말 안 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피곤하신 분도 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민다영 : 생각해봤는데 저희끼리는 얼굴도 익히고 이런 것도 좋은데 여기 관심 없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런 거에 관심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워서 활동가대회가 있다는 걸 주위 친구들이나 관심 갖는 친구들에게 알리고, 활동가대회가 있단 걸 알리고 활동하자 하는 것도 좋은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현실을 알려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활동가대회라든가 관심 갖고 다른 방향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대회나 자기가 했던 활동 내용을 친구들에게 좀 많이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거북 : 저도 어디 단체 소속된 건 아니고 혼자 소심하게 카페에다 글 올리고 한 거 말곤 없었는데 여기 대회를 따이루님이 카페에 글 올려서 봤는데 활동가라는 말에 뭐 연어맞는 느낌 같은 거예요. 활동가라는 단어에. 다른 거를 새로 열고 그런 거보다는 이 대회를 1년 주기로 하든지 반년 주기로 하든지 수고하신 분들이 또 열어주시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도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헛에 다음 홈페이지 이런 데 활동을 하든가 지방에 있어서 매번 올라오기도 힘들잖아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다 도와드릴 텐데. 저 같은 사람이 만하요. 소심하게 자기들끼리만 뒷담 하고 정치가 까기만 하고 선생님 까기만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와보면 많은 용기를 얻고 가는 거 같아요. 이 대회가 다른 걸 새로 열기보다는 헛을 열었으니까 이왕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도와드려서 2회를 열고 3회를 열어서 소심한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적이 f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상고 :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끝나고 집에 가서, 박카스 좋아하는데, 여러분 박카스 하나씩 드시고 힘내서 활동하시면 좋겠어요. 간지나게.

: 저는 여기 들어온 계기가 이메일을 통해서인데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챗에 관한 포스터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전단지 같은 거.. 소속된 관련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개인 주고 싶은 사람들ㅇ게 막 돌리는 거죠. 이런 데 있으니까 너도 관심 있으면 와봐라 이런 말 하면서 적극 홍보하면서. 저희 학교는 예를 들면 행사가 있으면 게시판에 붙여놓음녀 옆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게시판이 따로 있어서 분위기상 막 적는 애들도 있고 뭔가 활동률이 높거든요? r,m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책을 보면 글이 많은 책보다 사진과 그런 게 많은 책을 더 봐요. 아동 같이 그림책 더 좋아하는데. 시각적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관련 동영상 같은 걸 프리젠테이션 같은 걸 만들면서 2차로 보여준 전단에 흥미 가진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빠른 시간에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홍봄이 : 저는 충남 서산에서 혼자 활동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김남궁 : 저는 구미에서 올라왔는데요. 구미 아수나로 지부 있어도 활동하는 거 없거든요? 서명운동 한 두번 했나;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막 분들이 진짜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나는 비루하게 구미에서 짜질하게 그러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문어발인 사람들도 진짜 많고. 나도 저러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워가는 거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하고 싶고 괜히... 처음에는 청소년 활동이란 거에 대해서 애들이 별로 생각이 없어요. 나는 학교 싫은데 아니 뭐 학교 싫은데 말만 하고 솔직히 활동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소심하게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한별 : 저는 그 어찌다가 이렇게 준비 그걸로 하게 됐는데 처음에 준비 그런 거 모임 한다는 것도 모르고 갔었어요. 그러다가 어찌다가 고정돼서 계속 나가게 됐는데 이런 행사 준비 초보자 데리고 고생한 타이루와 다른 분들에게 되게 박수 쳐주고 싶구요. 저 같은 경우 어디 단체 소속돼 있다거나 하나를 파고 있진 않아요. 재밌는 거 보고 참가하는 정도인데.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좋았구요. 제2의 챗 제3의 챗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 활동가대회가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도 궁금하구요. 좋았습니다.

코에 바닷물 : 저는 챗이 청소년활동가대회로서의 챗이 아니라. 챗이 개인적으로 온 분도 있지만 13개 단체에서도 왔잖아요. 이례적인데. 활동가대회 챗이 아니라 활동가들의 연합으로서 챗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챗이라는 연합 거기서 활동하듯이 해서 각자 단체가 1명씩만 홍보해도 120명, 18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동가대회로서 챗이 아니라 연합으로 청소년활동가연합 챗이 되면 좋겠어요 .

민영 : 아직 얘기 안 하신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나요?

박두환 : 원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할 말은 다 한 거 같아요. 있으면 되게 여기 처음엔 피서 즐기려고 왔어요. 전 목적을 다 이뤘구요 계곡에서 놀아서. 근데 목적도 이뤘는데 의외로 많은 걸 얻어갔어요. 의외로 개성적인 분들 되게 많구요. 되게 신기해요. 특히 첫날에 한 그 OX... 그렇게 결정하는 거 정말 흥미로웠어요.

민영 : 예 감사합니다; 그옆에 분 말해주실 수 있나요?

민마디 : 말이요? 말;

민영 : 아 말하셨네요; (웃음)

민마디 : 한 마디만 할게요; 님들은 최고입니다.

민영 : 이로써 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